

존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복음 주심을 감사 드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말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10월 29일 (토) 제 189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선교에서 '도시' 는 중요하다!

TGC, '아메리칸리폼어' 공동설립자 이론 렌 목사가 전하는 도시 선교의 중요성 소개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면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 세상의 문화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도시로 가야 한다(팀 켈러 목사).”

도시의 선교에 중요하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까지 인류는 거의 다 시골에서 살았다. 1910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만 도시에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 인구는 50퍼센트 이상이며,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75퍼센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폴 로머(Paul Romer)는 늑대처럼 무리를 지어 생활하던 인간이 개미나 흰개미처럼 살게 되어서라며, 도시화라는 인간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한다.

도시화의 변화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 아프리카는 이제 다른 어떤 대륙보다 빠르게 도시화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인 약 12억 명이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21퍼

센트가 아프리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도 도시화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도시 빈민가에 살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선교학자 레이 바키(Ray Bakke)는 말한다 “더 이상 정글의 초가집이 아니다. 도시는 이제 6대륙 모두에게 열린 미래의 새로운 선교지이다.”

미국의 종교, 정치, 문화 분야에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추구하는 취지로 만든 'American Reformer'의 공동설립자인 아론 렌(Aaron M. Renn)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지구상 모든 종족 그룹과 위치에 도달하도록 강조하지만, 인구 통계는 도시 선교에 더 치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1억 명의 새로운 도시 거주자에 대해 1만 명당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율을 달성하려면, 1만 개의 새로운 도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수만 개의 새로운 도시 교회를 개척해야 함을 의미한다(Why Cities Are Important to the Church's Mission).

미국과 관련해서는 도시화가 다르게 보인다. 인구 조사국의 분류를 따르면, 미국은 1920년에 이미 도시 인구 50 퍼센트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는 약 80퍼센트에 이르는 사람이 도시 거주자이다. 그러나 “80퍼센트 도시 인구”라는 수치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관계 기관은 2,5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모든 곳이 도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가수 존 멜렌캠프(John Mellencamp)가 부른 “작은 마을”(small town)의 전형인 인디애나주 세이모어에 사는 누군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도시 거주자가 되었다.



또한 “도시”라는 단어에 대부분 사람은 다가가 주택 및 복합 용도 개발이 이뤄지는 고밀도 지역을 생각한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격자 형태의 도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도로가 배치된 곳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이 아니다.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애틀, 워싱턴, 볼티모어, 마이애미 등 전통적으로 도시화된 곳의 2020년 인구를 다 합해도 약 2천만 명에 불과하

다. 내가 사는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도시에 대학 도시까지 합쳐야 미국의 도시 인구는 3.4천만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나 그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0-15퍼센트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타는 대부분 미국인은 거대한 패턴으로 성장한 교외

에서 산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도 선교를 위해 전통적인 도시 지역이 여전히 중요한가? 그렇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3면으로 계속)



종교개혁, 여성들도 같이 했다!

레베카 밴두디아드가 전해주는 '종교개혁의 여성들' 소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남성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설교자, 신학자 그리고 순교자. 그들의 사역은 종교개혁의 틀을 잡았고, 그만큼 중요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또한 여성들의 활동도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다고, 작가인 레베카 밴두디아드(Rebecca VanDoodewaard, 'Reformation Women: Sixteenth-Century Figures Who Shaped Christianity's Rebirth' 저자)는 강조한다. 즉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의 사역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정에서 봉사함으로 개혁을 가속화하고 다음 세대 개신교인(Protestant)을 키워낸 것; 권력의 자리에서 봉사함으로 개신교의 자유를 수호하거나 증진시킨 것; 그리고 글과 출판을 통해서 개신교 사상을 고양시킨 것(The Women of the Reformation).

초창기 개혁가들의 아내는 가정을 사역의 기초로 삼는 데 탁월했다. 가정은 단지 남편이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곳만이 아니었다. 가정은 복음 사역과 복음 전파에 필요한 전진 기지(outposts)였다. 가정은 여행자들이 쉬면서 충전하는 곳이었다. 가정은 여성들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는 식료품 저장실이었다. 경건한 가정은 종교개혁의 풀뿌리였으며 종교개혁에 연

료를 공급하는 충전소였다. 이런 가정 사역에 있어서 단연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카타리나 루터(Katharina Luther, 1499 - 1552)다. 유명한 만큼 신경 쓸 일이 많은 그의 남편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많은 역할을 맡겼다. 그녀는 개신교 아내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닦은 사람이고, 과거 수도원이었던 곳을 생산적인 가정으로 바꾸었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 겸 편집장 김성국 목사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선교역사탐방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라운 (323) 737-7699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www.laguesthouse.com LA호텔식아숙 GUEST HOUSE

www.JAMAprayer.org 제3차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영상 부흥회 2022년 11월 14일(월)-19일(토)

발행인 칼럼

나에게도 광채(光彩)가 있을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1900년 중국 청나라에 의화단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북청사변이 일어났다. 이 사변을 일으킨 농민들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의 '부청명양'을 외치며 외국인 세력을 배격하였다. 그들은 특히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다. 기독교인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에겐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광채가 있었고 이 광채로 그들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그 험한 시대에 박해를 위한 구분이었지만 기독교인의 얼굴에는 남다른 광채가 있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광채가 있을까. 누가 그 얼굴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기쁨이 흐르고 있는가? 말을 달리하지 않아도 세상을 압도하는 그 광채가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다. (출 34:35) 모세만이 아니다. 시편 34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를 대면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나 광채를 입는다. 그리하여 그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출 수 없게 만든다.

야곱 나무에서 야곱도 그랬다. 거기서 그는 가족과 재산 모두 건네 보냈다. 야곱은 홀로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와 더불어 밤새 씨름하였다. 그때 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야곱은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창 32:30-31) 잠잠한 광경이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야곱에게는 찬란한 광채가 비추었다. 야곱이 비록 절게 되었지만, 그에게 입한 광채로 능히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가을이 가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형형색색(形形色色)의 단풍이 온 땅을 찬란하게 수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壯觀)이다. 멋진 단풍이 있는 곳엔 사람들의 발길과 시선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아무리 단풍이 멋있어도 머지않아 낙엽이 되어 이리저리 뒹굴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광채가 곧 낙엽이 될 단풍만도 못하여서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도 읽지 않는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게 해줄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의 빛이 우리에게서 더욱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아니겠는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 27:17) 그 사람 얼굴은 그 사람 마음의 창(窓) 같다. 그 얼굴은 그 인격의 모델하우스 역할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얼굴은 어떨까. 나에게도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그리스도인의 광채가 있을까?

시진핑 역사적인 3기 연임 시대 열려...

BBC, 어떻게 시진핑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었는가 분석 소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수십 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적인 3기 연임을 앞두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시진핑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었다.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인 부친을 둔 '성골' 출신이라는 정도가 다였다.

이러한 출신성분은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CCP) 상부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강화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 원로들은 보

통 은퇴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보스턴 대학에서 중국 엘리트 정치를 연구하는 조셉 퓨스미스는 "시진핑이 고위직에 오르기 전에는 모든 사람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석 재임 10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의 권위는 누구보다 확고하고 그 권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듯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How Xi Jinping made himself unchallengeable?).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 마오쩌둥은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남겼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마오쩌둥은 국가가 아닌 당이 인민해방군(PLA)을 통제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군사위원회(CMC) 주석을 겸직했다.

시진핑은 전임자인 후진타오보다 운이 좋았다. 바로 위원회 주석직에 올라 군대 내 반대파 제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4년과 2015년에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귀보쑹 전 인민해방군 장군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방대학(NDU)의 조엘 워트나우 선임연구원은 "두 권력자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시진핑은 둘을 표적으로 삼아 인민해방군 내에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영향력을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진핑의 권력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도 무탈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현역 군 간부에게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시진핑은 전면적인 군사 개편도 단행했다. 4총부(총참모부·총정치부·총후군부·총장비부)를 폐지하고 15개 기능부서로 대체했다.

군사 개편의 결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다양한 군 부문에 직접 명령을 내리게 됐고 재무 감사 부문도 중앙군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는 것이 워트나우의 설명이다.

이 상황은 무엇보다 시진핑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여주며, 비슷한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중이다.

지난달 중국의 관영 군사신문 인민해방군일보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총괄 지휘권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티모시 허스 수석 국제국방연구원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언젠가 시진핑에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의 세력이 커질 때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에 충성한다는 것은 인민해방군이 당의 권력과 시진핑의 집권을 위해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구'를 확보했다면, 내부 단속을 위한 '칼자루'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 시 주석 집권 2년 후, 당국은 저우용강

전 공안부장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에서는 부패 고위 관료를 '호랑이'라고 부른다. 저우용강은 시 주석의 라이벌인 또 다른 '성골' 보시라이와 가까운 사이였다.

저우용강에 대한 조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행사처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원칙을 깨뜨린 것으로,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다.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의 닐 토마스 중국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 주석이 "큰 권력을 손에 넣기 전까지 인내하며 시한계를 통과한 무자비하고 영리한 정치인으로 판명"됐으며 "힘을 실어준 공산당 원로들도 시 주석의 권력 장악 속도와 범위에 놀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측통들은 시진핑의 대표적 반부패 사정 운동이 당 내부 정쟁 상대와 다른 파벌의 제거에도 사용됐다고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470만 명이 반부패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치학자 빅터 시는 "시 주석이 지난 2년 동안 처음에 본인의 집권을 지지했던 공안 고위급까지 숙청했다"라며 "이제는 시진핑과 예전부터 함께했고 신임을 얻은 관리들이 공안부를 지배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주석은 베이징·상하이·충칭 등 주요 도시에서 당 서기 등 지역 내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했다.

토마스는 이러한 작책이 "수백만 명의 터전에서 당의 방침을 해석·적용"하는 자리인 만큼 중요성이 크며, 성급 당 서기 31명 중 최소 24명이 시진핑의 정치적 동맹 관계로, 가족끼리 알거나, 함께 수학했거나, 밑에서 일했거나, 죽음을 위해 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우 구오광 정치학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성급 상무위원회 위원 281명 중 대부분은 시 주석이 임명했다.

2018년 중국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됐다.

명칭이 너무 길긴 하지만, 본인의 이름을 딴 '사상(ideology)'이 헌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진핑의 유산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었다.

유일한 전례는 마오쩌둥이었다.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 덩샤오핑조차 이름을 딴 '이론(theory)'만 존재했고, 시진핑의



바로 전임자인 장쩌민·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이름은 사상이나 이론에 붙지 않았다.

시진핑 사상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라고 말한다.

홍콩집례대학의 장 피에르 카베스탄 정치학 명예교수는 "시진핑의 사상은 주로 본인의 정통성과 권력을 중국 공산당은 물론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시진핑을 마오쩌둥뿐 아니라 과거 가장 큰 영화와 성공을 누린 중국 황제와 연결 짓는 새로운 개인 숭배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콩 신문 '밍파오(Ming Pao)'에 따르면, 중국에서 베이징·칭화 등 명문 대학을 비롯한 수십 곳의 대학·기관이 시 주석의 이름을 딴 연구 센터를 설립했다.

지난 8월 중국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시진핑 사상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학습강국(Xuexi Qiangguo)'이라는 모바일 앱이 출시됐는데, 그 이름은 시 주석으로부터 배우고 중국을 강화하자는 중의적 뜻으로 해석되며 앱에서 시진핑 사상 퀴즈를 제공했다.

컬럼비아 대학의 앤드루 네이션 정치학 교수는 시 주석이 "스스로 올바른 사상을 가졌고 모두 그 사상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마오쩌둥이 어떤 정치 기조를 취할 때마다 모든 중국인이 이에 따라야 했는데, 이제 시진핑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2. 신약주해: 히브리서 10:19 - 25
3. 논문제목: 포스트 펜데믹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4. 설교본문: 구약 - 야모스 8:11 - 14, 신약 - 딤후 4: 1 - 5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7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정소에 입성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선교에서 '도시' 는 중요하다...

(1면에서 계속)

1.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도시에 사는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루이빌이나 버밍엄 같은 작은 도시든, 보스턴이나 시애틀 같은 큰 도시이든, 도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 도시에 핵심 기관들이 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정부를 통제하는 주요 도시는 핵심 거점이다.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그곳에 있다. 베이 지역의 기술, 뉴욕의 금융, LA의 엔터테인먼트, 보스턴의 생명 공학 및 엘리트 고등 교육, 워싱턴의 연방 정부는 이러한 해안 센터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 중 하나로 만든다. 구글, 디즈니, 뉴욕타임스, 국방부, 하버드 같은 기관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전략적이다. 복음이 핵심 기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다면, 교회가 도시에 존재하고 또 견고해야만 한다.

3. 변화는 도시에서 시작한다.

국가의 문화 형성 기관이 모두 다 주요 도시 중심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문화적 변화는 도시에서 먼저 발생한다. 펜실베이니아 역이 뉴욕시에서 철거되었을 때, 전국에서 역사 보존 운동이 촉발했다. 현대 LGBT+인권 운동은 1969년 뉴욕의 스톤월 폭동으로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있지만, 뉴욕, 샌프란시스코 또는 LA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

들 것이다. 도시 교회는 일찍부터 문화적 변화에 노출된다. 이런 이유로 도시 교회는 종종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해낸다. 도시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또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굴복하더라도) 그들은 많은 교회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red-state)의 교외나 또는 작은 마을의 안락함에 빠져서 도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비판보다는 그들이 어떤 압력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는지, 더 주의할 것을 이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힘이 곧 모든 곳에서 똑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 사역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로 도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21세기 선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종교개혁, 여성들도...

(1면에서 계속)

The Black Cloister(루터의 집으로 사용됐던 수도원)은 여러 면에서 종교개혁의 본부가 되었다. 거기서 마틴 루터는 공부하고 글을 썼고, 카타리나는 저녁이면 그의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루터가 학생들을 초대하면 카타리나는 그녀가 직접 재배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아이들은 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루터의 친자식들 외에 그가 입양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수도원에서 미래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 가족이 어떻게 살고 움직이는지를 목격했다. 낡은 수도원이 카타리나의 손에 의해 개혁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느끼는 구원의 기쁨이 그녀 속에서만 끝나지 않았기에 그녀의 가정을 통해 육체적 그리고 관계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만 같았다.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카타리나의 가정과 비슷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안나 불링거(Anna Bullinger, 1504 - 64)의 가정이다. 아이가 열한 명이나 있음에도 그녀는 엄청난 숫자의 개신교도 손님들과 열두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을 한 번에 집에 받아들였다. 이 부부의 가정은 한마디로, 안나가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기독교인에게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집 또는 교회에 있지 않을 때면, 안나는 취리히의 빈민들을 찾아서 음식과 옷, 그리고 돈을 주었다. 그녀는 남편 울드리히(Huldrych)가 전투에서 사망한 후 내내 돌보던 안나 츠빙글리(Anna Zwingli)의 모범을 따랐다. 안나 불링거는 손님들을 통해, 또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 쓴 남편의 글을 통해 온 유럽으로 알려진 모범이 되었다.

종교개혁 시절 목사의 부인들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과 가족을 개방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수도원 생활(monasticism)에 대한 공개

적인 비난이었다. 이런 성경적인 생활 방식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 결혼 등에 관한 교리에 직접적인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수녀원과 수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개신교 목사의 부인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수도사와 수녀가 해왔던 것과 똑같이 기도하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여행객을 맞았고, 또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개신교인의 부인들은 수도원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비록 그런 활동이 항상 눈에 띄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가정 사역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당연시 여기고 있던 전제를 공격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이 수세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박해에 직면해서도 오로지 성경만을 붙잡고 설 준비가 된 새로운 세대의 개신교도를 키워냈다.

여왕과 공주들은 종교개혁 기간 중에 공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왕족 여성들이 개신교로 개종했다. 그들은 남자 혈족들보다 훨씬 더 쉽게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시류도 따르지 않았다. 유명한 개신교도들은 종종 쉽게 표적이 되었다. 고위직 수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녀원장은 종종 귀족 출신이었고, 개신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려야만 했다. 종교개혁자의 부인들이 무대 뒤에서 엄청난 양의 사역을 감당한 반면, 종교개혁에 참여한 여왕들과 수녀원장들은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고립과 협박, 그리고 폭력에 직면해야만 했다.

잔느 달브레(Jeanne d'Albret, 1528 - 72)는 알골중독자이자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1555년에 죽자, 나바르 왕국(Navarre)의 여왕이 되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위치한 나바르 왕국 여왕의 위치는 취약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그녀는 지체하지도 또 낙담하지도 않았다. 이미 수년 전에 종교

개혁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잔느는 그녀의 왕국을 로마 가톨릭의 바다에서 안전한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었다. 그녀의 아이들이 납치되었고, 그녀의 삶은 위협을 받았으며, 반란과 프랑스와의 전쟁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이 모든 환난보다 더 컸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작은 공주"라고 불렀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에스더처럼 자신을 지금 이 위치에 두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프랑스의 종교 전쟁 내내 위그노(Huguenots, 프랑스인 개신교도를 부르는 말)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녀는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본보기였다. 그녀의 용기와 교리적 확신은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되었고, 고통받는 다른 신자들에게 위로가 가져다주었다.

카타리나 본 지먼(Katharina von Zimmern, 1478 - 1547)은 힘든 유년기를 보냈고 결국은 수녀원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자매는 사제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얼마 후 카타리나는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갔고 결국 취리히 전체를 책임지는 수녀원장이 되었다. 엄청난 양의 토지와 현금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리였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지명한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했다. 그러나 취리히 전체 도시와 마찬가지로 카타리나도 개혁주의 신앙에 노출되었고, 어느 시점에서 개신교로 회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개신교 목사들을 초대하여 수녀들의 라틴어 교육과 영적인 관리를 부탁했다. 츠빙글리(Zwingli)는 수녀원장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라면 개신교 활동을 폭로할 수도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지원세력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츠빙글리의 우려와 달리, 1524년 말에 카타리나는 수도원과 모든 재산을 취리히시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로마가 잘못되었고,

(9면으로 계속)



시론

장엄함에 대하여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연일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포로 인하여 한국도 미국도 대응책을 두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번에 터진 카카오의 대란은 아무리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약속하지만 결국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매일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 앞에서 일회일비하는 삶으로 가득합니다. 유한한 세상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엄함에 세상에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랍니다.

높고 푸르러 가는 가을 하늘은 제라드 맨리 홉킨스가 쓴 하나님의 장엄함, God's Grandeur라는 시를 떠올립니다.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충만하네). 온 세상 만물에 깃들인 장엄함이란 위대한 언어의 능력을 신인 시인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꽃을 찾아 분주하게 날개짓 하는 벌들에게나 바람에 실려 하염없이 날아다니다 이름 모를 땅에 내려 기어올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민들레 흙씨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지만 그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온 우주 공간을 거쳐오면서 따스한 햇살이 되어 포도알 끝에 내려 단맛을 스며 들게 하는 것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장엄함이란 존재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가슴을 떨게 하는 경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엄함은 자연과 삶에 대한 경탄을 자아내게 하고 삶을 의미와 기쁨으로 차오르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기쁨이 넘쳐나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렇게 피어난 들꽃 하나도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고 무작정 저지귀는 하늘의 새소리도 어떤 교향곡 보다 감미롭게 들립니다. 이런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 낸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사람이 라는 영광스러운 존재에 감탄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엄함이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 비하면 태양 앞에 화려한 샵들리에의 빛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 우리 가슴이 이런 장엄함에 물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즐거이 삶을 노래할 것이요 마침내 진흙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보든 거울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든 우리는 절망의 무게보다 언제나 저울추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희망의 날개를 바라볼 것입니다. 허물로 범벅 된 인간이나 어그러진 세상에 아파한다 해도 소망의 노래를 조금도 그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지휘봉은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1741년, 헨델은 성령에 취해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24일만에 메시아 작곡을 마치고 마지막에 모든 선율을 뛰어넘는 심장의 소리를 새깁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할렐루야 연주가 끝이 났을 때 영국 왕이라 해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1789년, 하이든은 3년에 걸쳐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시간 50분의 공연이 끝났을 때 천상의 소리에 모든 사람은 하이든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장의 하이든은 박수를 중단시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의 영광 그 공로, 영원히 노래하라 우리 주를 아멘." 깊어가는 이 가을날 주님 앞에 비오니, 부디 우리 삶이 하늘의 장엄함으로 차오르게 하소서.

preachchrist@kcpc.org

Candidacy Qualification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Isaiah 52:13 - 53:12
 (2) NT Exegesis Text : Hebrews 10:19 - 25
 (3) Thesis Topic : Write about the Reformed Church in the Post-Pandemic era - 'Metaverse and the Lord's Supper'
 (4) Sermon Text : O.T- Amos 8:11 - 14, N.T- 2 Timothy 4:1 - 5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3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7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3-26, 2023).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2(Mon)~23(Tue), 2023
- b) Place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Vice Moderator 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3.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22-23, 2023) through Rev. David H. Park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H. Park
Address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U.S.A
Cell : (917) 254-0887 E-mail : heepark91@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홍기표 목사
서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동물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

세상에 정신 나간 동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쩌면 무당들도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푸닥거리하지 않는데 소위 기독교의 탈을

쓰고 개, 고양이들을 축복하는 예식(?)을 진행했다고 하니 참으로 생각만 해도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달 15일에 한국의 성공회 대학의 교목실과

소속 교회 사제와 장로회 통합 축 소속인 '동물과 함께 하는 교회' 목사라 나체로 설치는 동성애를 위해 축제 현장에서 성 만찬을 거행했던 기장소속 여

목사가 공동으로 '반려동물 축복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축복식이 생소하나, 외국 교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물과 사람은 공평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밝히면서 '기독교인들이 더욱 모범적으로 동물을 대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까지 전했다고 한다.

동물 같은 지도자들은 반려동물 30여 마리와 가족 50여 명을 불러 모았고, 미처 반려동물을 데려오지 못한 가족들은 사진을 꺼내 놓거나 장난감을 갖고 와서 축복하고... 이미 죽어서 사라진 반려동물에 대한 추모도 진행했다고 하니...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기가 찰 일이 아닌가!
이런 일련의 못 된 행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한 모독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에 대한 무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동식물들은 혼은 있을지라도 영이 없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의 지배와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영적 우대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피조물과 생물들을 고귀하게 다뤄야 할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저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더 잘 드러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를 효과적으로 감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식물의 생명체라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은 곧 우리 인간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한다. 반려동물들이 참 귀엽고,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다. 못된 망나니 같은 자식들보다는 반려동물이 훨씬 주인을 잘 섬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거액의 유산을 반려동물들에게 남기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어디까지 동물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비단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만들었지만, 동식물은 아담이 타락할 때 함께 동반 타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창 3:17-18)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뉴욕백민교회 원로목사)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2-3)

1. 이렇게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첫 말씀입니다. 그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70명의 가족 단위로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다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행군을 시작한 백성입니다. 인구 200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민족 이름에는 '물,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유브라테 강을 건너,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단계입니다.

강은 건너기 어렵고, 한번 건너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크나큰 경계선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나 홍해를 건넌으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인도자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왕이 통치했고 그들의 우상문화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크고 엄중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이 주어지는 큰 역사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일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목적도 선명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출 19:5-6)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창 1:31)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사람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신 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계명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시 23:1)고 고백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 앞에서 바라보니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풍부해

를 속박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유를 짓누르는 것으로 여겨 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만족스러움을 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습니다. 공원 중에는 울타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반경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울타리가 없는 공원에서 아이들은 끝없이 달려가고 달려오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공원에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10미터 20미터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100미터도 더 되어 보이는 울타리까지 달려갔다 달려오기를 즐겁게 반복합니다. 몇 배

말지니라는 내용입니다.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 19:16-22) 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묻는 한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6-40)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주어지지 1510여년 후를 사시면서도, 그 십계명을 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끼리의 관계를 이해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가르침도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응축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 공경으로 시작되는데,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고 쉽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말하면 놀랍도록 쉽게 이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아주 감격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

12:49-50) 하십니다. 사람은 서로 간에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함께 해야 복됩니다. 마치 노쇠해 가는 부모에게 깊이 자리잡은 소원이 '자식들의 우애'임과 같이, 형제가 서로 우애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사자가 양과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는다'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11)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요일4:12-13)
선교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헬라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한편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꿈에 백발의 신선이 약 한 봉지를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150년을 아프지 않고 살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면서 깨어보니, 꿈에 보았던 그 약봉지가 머리맡에 놓여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와 나누어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줄 것 같아 단념했습니다. 몇몇 친구들도 생각났으나, 여전히 아까와 그 만두기로 했습니다. 혼자 한입에 꿀꺽했습니다. 약의 효능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00세가 넘고 120세 140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 줄은 오래 살아가면서 절박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도 죽고, 동년배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외로워 젊은 층들을 힘들여 사귀다 보면 또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옆에 함께 할 친구가 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그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 때 그 약 나누어 먹을 걸 그랬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해야 파스합니다. 좁지 않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십계명 두 번째 부분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을 지켜 살 때, 함께 우애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튼튼하게 엮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동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복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사랑과 영원의 출입문입니다. 지켜 살고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kangkibong@hotmail.com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20:1-17



나님께서 사람의 언어에 자기의 기본적인 뜻을 담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2. 첫 부분은 1-4 계명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풍조가 거세게 율트림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늘에 가리워져 왜소해 보이거나, 아예 없는 분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짝튼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인간의 지능과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역시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채워질 수 있는 빈방을 차려놓으셨습니다.(전 3:11, 롬 1:19)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자기

의 거리입니다. 깔깔거리면서 시험을 합니다. 울타리는 아이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사람의 참 자유, 낭비없는 삶을 보장하는 보증서입니다.

3. 두 번째 부분은 5-10계명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이들이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엄마와 아빠를 통해 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문을 부모 공경으로 여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 부모를 그와 같이 받들고 이웃을 그 마음을 뿌리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차세대와 가정, 교회에게 치명적인 3개의 발의안(Proposition)들! 이번 11월 투표때 꼭 NO 하세요!!

1. STOP PROPOSITION 1!! 절대반대!!

발의안 제1은, 개인 뉴שמ이 간절히 원한다고 발표한 “캘리포니아를 낙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실현화시키는데,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른 주에서 낙태하러 오는 사람들이 건강한 태아도 없애는 것을 돕게 만듭니다.

개인 뉴שמ은 캘리포니아주를 다른 주에서 온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역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표했으며 9월 말에 12개나 되는 모든 낙태 허용법안들을 한꺼번에 서명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AB2223으로 캘리포니아 사람들과 다른 주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반대할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Prop. 1 이 말로 할 수 없이 사악한 이유는 건강하게 잘 자라던 태아가 죽기 싫다고 엄마 뱃속에서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도, 그런 태아의 말기낙태까지도 어떤 시간적, 의료방법적 제한도 전혀 없이 합법화할 뿐 아니라, 엄마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너무 허술하게 지나갈 뿐입니다.

낙태 찬성론자인 Guttmacher Institute 연구소는 만일 Prop. 1 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가 국내에서 낙태를 추구하는 다른 주 출신 인구가 3,0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으며, 많은 주들이 더 비싼 후기 낙태를 하러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연간 out-of-State 환자 수는 연간 46,000명에서 14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발의안에 적힌 뜻(발의안 내용은 Tvnex.org에서 참조), 후기 낙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발의안 1은 납세자들이 인플레이션과 하늘 높은 기름값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고갈시키면서 이러한 수치를 훨씬 더 높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이미 올해 낙태와 생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주에서 온 낙태 신청자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Prop. 1 은 여성의 건강이나 선택권을 증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힘들게 살고있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세금을 높이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후기 낙태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비윤리적인 발의안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화나를 캘리포니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통과시키고 난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악화된 캘리포니아를 만들 것입니다.

2. STOP PROP. 26! 독점 도박

그 어떤 기업과 비즈니스든, 작은 소기업과 비즈니스를 무너뜨리는 대기업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Prop. 26 은 두 가지들 한꺼번에 합니다.

발의안 제26호를 추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특수 이익 단체가 5개 있는데, 이 5개의 카지노는 PROP. 26 (제안 26)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모든 게임의 독점을 보장받기 위해 민간 재판 변호사에게 법무 장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경쟁사인 인가된 카드를 말도 안되는 소송으로 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26호는 대규모 확장으로 도박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폰서가 슬롯머신의 현재 독점에 플랫, 주사위 및 스포츠 도박에 대한 독점권 또한 추가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독점을 확대하고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중요한 주 노동자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Prop. 26은 한마디로 Monopoly (독점)을 통해 작은 비즈니스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한번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에도 “독점”이 적용되어 또 비슷한 “독점” 법안들이 이어 나올 수 있기에, “독점”은 초기부터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링크: Home - Vote No on Pro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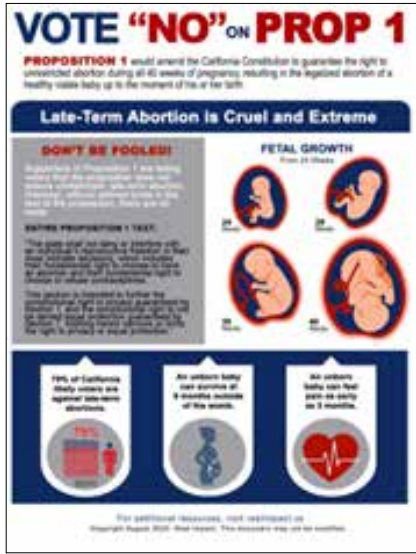
3. STOP PROP. 27! 미성년자를 온라인 도박으로 인도하는 발의안 절대 반대!!

아이들을 팔아 돈을 벌려는 자들의 거짓 주장에 속지 마세요!!!

Prop. 27을 추진하는 타 주에 본거지를 둔 온라인 도박 회사는 Prop. 27은 노숙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자고 합니다.

이들은 모든 휴대 전화, 태블릿 및 컴퓨터를 도박 장치로 만들고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박 확장을 합법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라는 도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위원회는 온라인 도박이 직접 하는 도박보다 중독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째,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다른 유형의 도박보다 도박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5배나 더 높다.

둘째,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은 빠른 속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박장에 입장이 불가능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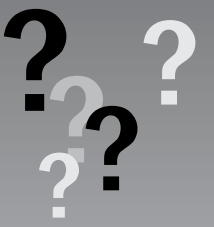
Prop. 27 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들 ...

첫째, 미성년자 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으며, 어린이가 잘못된 정보나 성인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 베팅을 하는 것을 방지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 둘째, 신용 카드로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독과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쉽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될 위험에 빠지게 한다. 셋째, 캘리포니아는 지난 5년 동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의 90%를 타 주 도박 회사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넷째, 일반 기금을 명시적으로 회피한다. 세금 수입의 단 한 푼도 공립 학교, 산불 예방 또는 비상 대응과 같은 주 우선순위에 사용되지 않는다.

링크: Vote NO on 27, The Corporate Online Gambling Prop
더 자세한 내용 및 캘리포니아 나머지 Proposition 및 선거자료들은 tvnext.org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0316@gmail.com

Q: 한국의 최초의 세례교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최초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 이희은

A: 한국의 선교는 2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한국에 들어 온 것과 한국인 최초의 교회가 선교사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인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쓴 오덕교 교수의 책에 의하면 한국인을 위한 성경번역은 만주와 일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만주에서는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맥킨타이어(John McIntyre)가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은 만주 지역을 탐색하다가 만주로 이주해 오는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존 로스는 1872년 요령성의 심양에서 이응찬, 백흥준, 이성하, 김진기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으며 1876년 이응찬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를 한국 기독교 최초의 세례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존로스는 이응찬, 백흥준, 서경조의 도움으로 1880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 완료하였고 1887년에는 신약을 완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최초 교회 한국인이 먼저

일본에서는 1882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와있던 이수정에 의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인 농학자 쓰다센박사의 전도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에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았고 미국 성경공회 총무 루미스의 권고로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1884년 마가복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로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국어로 된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는 외국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세워졌는데 만주에서 성경 번역에 참여했고 성경을 파는 매서인으로 일하던 서상륜이 성경을 가지고 비밀리에 국경을 넘어 황해도 소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883년 교회를 세움으로 소래 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상륜은 원래 양반으로 태어나 한문 공부도 많이 했고 중국어도 잘했고 중국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중에 장티푸스에 걸려 몸이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기독교를 접한 이응찬이 그를 매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생명의 위급함에 처한 서상륜은 서양병원에서 선교사 헌터(Joseph M. Hunter)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심양에서 존로스 선교사를 도와 한국 성경번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서상륜은 또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자신이 번역한 복음서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 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1883년 5월 16일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초가집 예배당인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가면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의 생활관 뒤편에는 아늑한 한옥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옥 개인 주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이후에도 한국교회에 중요한 교회가 3개가 더 있는데 인천 내리교회와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새문안교회입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 - 4645 / Fax: (636)327 - 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571)730 - 4750 / Fax: (571)730 - 4751
E-mail: wde@midwest.edu

문의: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이나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심심(深心)한 사과(謝過)

세상은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의외로 많다. 그 중에 말이 뜻 즉 의미도 포함이 된다. 어설피거나 대중 알아듣게 되면 곧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말의 중요성이 강조된 말 중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라.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을 수도 있음을 되새기게 된다. 말은 분명 '아'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는 자도 말을 듣는 자도 잘 새길 필요가 큰 이유다.

얼마 전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측의 실수로 인해 의외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주최 측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한 것이 잘못 와전되어 일파만파로 번진 일이 있었다.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지루하고 재미없다'로 잘못 이해하여 벌어진 일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이들을 놀렸다고 이해하면서부터 무식(無識)이 곧 용감(勇敢)한 이슈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언어 이해력이 도마에 올랐다. 심심

은 깊은 심(深)에 마음 심(心)을 더한 즉 깊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의미한다.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 전한 '심심한 사과'에는 조금의 잘못된 의도가 없다. 문제는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 이해부득에서 나타났. 어떻게 진심을 다한 깊은 사과를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진심을 다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억지까지 등장했다. 세상은 알 수가 없다. 잘못 이해한 것을 수긍하면 사과받은 것이 없어지거나 하듯 엉뚱한 트집을 이어간다. 정말로 세상살이가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자들의 욕구불만이 아닌가 싶다. 성경에는 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라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다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갈 때 가는 길이 험겨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

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죽겠다는 자들은 죽고 살겠다는 자들은 살리시겠다는 말씀이다. 자연(自然)은 억지가 없다. 억지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연이 될 수 없다. 자연은 곧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소리)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동물학자가 아니라 장담하건 어렵지만 아마도 동물들이 내는 소리에 속임수 즉 사기(詐欺)는 없을 듯하다. 천둥·번개가 치는 우레 소리나 바람이 지나가며 울리는 풍경소리는 자연과 같다. 소리의 울림 그 자체가 진실인 까닭이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의 말 즉 소리에 속임이 많다. 엄하게 단속하고 경고해도 속이는 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들은 줄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교묘하게 속이는 사기술이 능수능란한 이유겠지만 이해부득인 것도 사실이다. 사람에게 속고 사랑에 속았다 고 한다. 청춘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을 잃기도 한다. 뱀에

게 속은 오기라도 발동한 탓인가? 그 이후부터 사람은 말(소리)로 사람을 속이고 동물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선수가 되었다.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속는 원인은 이해부족에 있다. 그 중에도 보이스 피싱의 피해는 거의 욕심인 앞선 상황 판단의 부재가 아닐까 싶다.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이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만 열어서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되기도 한다. 사건사고 뒤에 어김없이 따라붙는 가짜 뉴스는 어떠한가? 일주일 전쯤 터진 한국의 카카오 사태에도 가짜 뉴스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가짜 뉴스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선동은 쉽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가짜 뉴스는 거의 표현의 자유라는 매우 이상적인 방패를 앞세운다.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사고 가짜 뉴스가 판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가짜 뉴스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분야에까지 거침없이 파고든다. 유명 대선 후보가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 낙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를 문제 삼으면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한다. 보이스 피싱이든 가짜 뉴스든 그 저변에는 정확한 판단의 부재와 이해부족이 자리한다.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진심을 다한 사과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미와 반대가 되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말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세상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말씀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혼돈(혼란)이 왔고 그 여파는 이제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 되 곧 제대로 바로 아는 것이 힘이 되어야 보이스 피싱도 가짜 뉴스도 판을 치지 못할 것이다. '내 탓'이 먼저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자신을 지키는 방패임을 잊지 말자.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옛 식민지 인도계 英 총리에 전 세계 인도계 환오

취임을 앞둔 리시 수낙 영국 총리를 두고 인도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영국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수낙 총리는 인도계로 영국 역사상 첫 비(非)백인 총리다.



영국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최초의 유색인종 총리이자 최초의 힌두교 총리가 될 예정인 리시 수낙이 영국이 다문화·다종교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리시 수낙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결정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수낙 총리를 인도계 영국인들의 '살아있는 가교'라고 칭했다.

모디 총리는 이어 "당신이 영국 총리가 됨에 따라 우리가 글로벌 이슈에 함께 밀접하게 협력하고 '로드맵 2030'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드맵 2030'은 지난해 5월 모디 총리와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서명한 파트너십 약속으로 양국 교역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로 키우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체성과 인종에 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 '브리티시 퓨처'의 순데르 카트왈라 소장도 수낙 총리의 취임이 10~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디언에 "수낙 총리의 취임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공직도 모든 종교와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준다"며 "많은 영국 내 아시아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런던 북서부에 거주하는 인도계 해말 조시(43)씨는 뉴욕타임스(NYT)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이미 인도에서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수낙 총리는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하기 전까지 89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 영향으로 영국에는 여전히 150만명에 달하는 인도계 민족이 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계 이민자의 아들이며 힌두교 신자인 수낙이 영국 의회 다수당인 보수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힌두교 달력에 따른 새해 축제 '디왈리'를 즐기는 인파가 가득한 인도 뉴델리의 거리로부터 런던 서부의 쇼퍼 거리에 이르기까지 환성이 일었다"고 전했다.

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수낙 총리의 취임이 확정되던 날 런던 북서부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을 방문한 쉬바니 다사니(22)는 NYT에 "우리가 최초로 유색인종 총리를 맞이한 건 대단한 일"이라면서도 "수낙 총리는 부유한 상류층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체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 아버지와 약국을 운영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수낙 총리는 영국 명문 사립 원체

스터 칼리지를 거쳐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스탠퍼드대로 건너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시작했다. 스탠퍼드대에서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 나리아나 무르티의 딸 악사타 무르티를 만나 결혼했다. 올 5월 발표 기준 수낙 총리 부부의 자산은 7억3000만파운드(1조1820억원)로 영국 내 222위에 오른 바 있다.

「교실문 잠그고 탈출」 美 고교 졸업생 총기 난사 사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범 침입을 눈치챈 이 학교 교장은 교내방송을 통해 학생과 학생들에게 알렸다. 학생들은 교실 문을 잠근 채 창문을 통해 대피했다. 이 같은 상황이 담긴 장면이 트위터에 통해 퍼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1세 교사와 16살 학생 등 2명이 사망했다. 범인은 이 학교의 19살 졸업생으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됐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범 올렌드 해리스가 오전 9시 직후 '센트럴 비주얼 앤드 퍼포밍 아트스 하이스쿨'에 침입해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학생 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상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역 매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숨진 교사가 이 학교에서 보건을 담당하던 진 쿡스카였다고 보도했다. 쿡스카는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을 막아서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교사의 딸은 그가 학생들을 사랑했고 퇴임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15~16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총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를 졸업한 총격범 해리스는 장총과 총알 30발을 채울 수 있는 대용량 탄창 12개로 무장한 채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학교 건물로 들어선 뒤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라고 외치며 총을 쏘았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에 무장요원들이 학교에 도착했고 총격범을 찾는데 8분이 걸렸으며 2분간 총격전 끝에 범인이 사살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색 경찰서장은 해리스가 전과는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금속탐지기를 갖춘 이 학교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보안요원 7명이 교내에 배치된 상황이었다. 한 보안요원은 해리스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 관계자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911에 신고했다.

이 학교 교장은 총격범 침입을 알리는 암호문구인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며

교내 경고방송을 했고 학생과 교직원 등 수백명은 교실 문에 바리케이드를 친 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트위터엔 학생들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는 사진이 공유됐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영상도 트위터에 올라왔다. '세인트루이스 예술고등학교 교실 내부'라는 제목의 영상엔 학생들이 교실로 추정되는 장소에 모여 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무기를 들고 교실 안을 돌아다닌다. 학생들은 그 모습을 두려운 표정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도 올라왔다. 영상에는 총격 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출동한 경찰의 사이렌 소리도 요란하게 들린다. 총격전 장면이 직접 담긴 건 아니지만 소리만으로도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AP통신은 범인을 맞닥뜨렸으나 총기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학생도 있었다고 전했다. 타니아 골스턴(16)은 "교실에 범인이 들어왔고 바닥에 피가 있었다. 난 뛰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며 "범인과 눈이 마주쳤지만 총기 걸림 때문에 (총이 발사되지 않는 순간을 이용해) 바깥으로 빠져나왔다"고 증언했다.

또 교사 레이먼드 파크스는 범인이 총을 겨냥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과 학생들이 도망치는 것을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처음에 학교 문이 잠겨 있어 총격범 대응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며 범인이 학교 건물로 진입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美 중국 스파이 무더기 기소, 화웨이 수사 정보 등 빼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국 스파이들이 미국에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미국에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는 등 간첩활동 등을 한 중국인 11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13명 중 10명은 중국 정보요원 등 정부 관리였다.



메리 갈런드 연방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수사결과와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고 이를 보호하는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려 했다"며 "법무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를 방해하는 어떠한 외세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지난 20일 미국의 법집행당국 요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화웨이 기소를 저지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허가오준과 왕정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씨와 왕씨가 화웨이의 이익을 위해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대외 첩보 작전을 수행한 정보 요원들'이라고 지목했다. 공소장에는 화웨이라는 회사명 대신 '중국에 본사를 둔 통신회사'라고 언급됐지만, 이는 화웨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허씨와 왕씨는 2017년 초부터 스파이 활동을 위해 미 법집행기관 소속 관리 A씨와 관계 구축을 시작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중 스파이로 미연방수사국(FBI)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 관리에게 6만 10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고 화웨이에 대한 미 법무부의 수사와 행사기소에 관한 기밀 정보 자료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씨 등이 화웨이에 대한 행사 사건에서 증인, 추가 기소 가능성, 법원에 제출할 증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검찰의 재판 전적 회의를 녹화해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A씨는 가짜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사진을 대신 제공했다. A씨는 이 문서를 전달한 대가로 4만1000달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주에도 정보를 달라며 A씨에게 수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뇌물은 비트코인과 보석 등으로도 전달됐다.

화웨이는 2018년 HSBC 등 은행들에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숨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2020년에는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려 한 혐의로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사업 사실을 숨긴 혐의로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뉴욕 동부지검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범죄 도피자의 본국 송환 계획인 일명 '여우사냥'에 가담한 중국인 7명을 별도로 기소했다. 여우사냥은 중국 정부가 거액의 돈을 갖고 중국을 탈출한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려는 작전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뉴저지 연방지검은 미국 거주자들을 상대로 중국을 위해 첩보활동을 할 스파이를 모집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 뉴저지에서 기소된 4명 중 3명은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이들은 중국으로 보낼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기를 희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리창·허리핑 투톱으로 경제팀 개편

시 주석은 집권 3기 정치국 인선을 통해 충성하면 영전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다. 대표적 인물인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다. 시진핑 사단의 주축인 리창의 상무위원 진입은 예상됐던 일지만 그가 단숨에 권력 서열 2위에 오른 건 파격적이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이 국무원 총리에 지명되면 정치국원(24명)에 포함된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투톱 체제로 중국 경제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친화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리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류허 부총리가 모두 퇴장하게 되면서 시 주석의 핵심 여제단인 공동부유 실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배 중심의 공동부유를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개방과 균형을 맞출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이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며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개방 심화, 고품질 발전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떨어질 수 없고 세계의 발전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며 "중국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7. 함호용 (1868-1954)

함호용(咸鎬鏞)은 1868년 6월 5일에 한국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1880년에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최해나와 1897년 2월에 결혼하였다. 해나가 세례명이었으므로 최해나가 감리교회에 다녔을 것으로 보이고 함호용도 교인으로 보인다. 결혼 후 고향에서 거주하였는데 서울 고덕동이나 평택 고덕동인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하와이 노동 이민의 꿈을 가지고 제물포 내리감리교회의 도움을 얻어 1905년 5월에 제물포에서 일본 고베로 가서 몽골리아 기선을 타고 하와이로 출발하여 열흘 후인 그달 1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함호용

1905년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함호용 부부는 마우이섬 스프레클스빌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부네네 지방으로 이주하여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곳에 있는 브네네 제일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이 교회는 스프레클스빌 지방에 있던 한인감리교회의 기도처였다.

홍치범이 마우이섬의 스프레클스빌 지방과 와이쿠루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인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1906년 초 브네네 한인감리교회를 포함하여 이 지방에 있었던 여러 한인감리교회에 22명의 학습 교인과 11명의 세례 교인이 등록했고, 두 곳에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6명의 교직원이 있었으며 40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1907년 5월에 함호용은 한인들과 함께 부네네에 동명(東明)소학교를 설립하고 부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에서 수업했다.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목사였던 김이재가 교장을 맡고 함호용은 서기로 재임하여 학교 운영과 학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대한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13개 모범 한글학교를 선정할 때 동명소학교가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을 정도였는데 그후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1930년대에 폐교된 것 같다.

서 하와이에 '의성회'가 조직되었고, 김재규가 대표로 있던 '의성회'에 함호용이 가입한 것 같다. 1907년 9월에 하와이 한인 단체가 연합하여 함성협회가 조직될 때 함호용이 함성협회에 가입하였다. 이듬해인 1909년에 함성협회가 미주 한인 공립협회와 연합하여 국민회가 조직될 때 그가 함성협회의 후신인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1910년 5월에 대동보국회가 국민회에 참가하여 대한국민회가 되었을 때 1919년에 함호용은 대한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산하 마우이섬 부네네 지방총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해 12월에 25달러를 지급하고 대한민국 자유공채를 구매하였다. 그가 구매한 공채는 제1회 제4권 19호였다. 공채금

영수증에 하와이 지방 국민회 총재무인 김영우가 날인하였다.

적어도 1926년부터 하와이 선교연회는 함호용을 권사로 파송했을 것이다. 그래서 4년간의 신실한 권사직으로 그가 1930년에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24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모였던 1929년 3월이었다. 본 연회는 그를 스프레클스빌 지방 14곳에 흩어져 있던 한인감리교회 중 부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의 권사로 파송했다. 그달에 임준호 목사가 마우이섬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들 외에 박기H, 강재우, 이환일, 문연찬, 김인경, 장용운 등이 본 지방에 파송되었는데 이들 중 5명은 지방 전도사였고 그 외는 권사였다. 브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가 스프레클스빌 지방에서 교세가 가장 큰 교회로 보인다.

함호용이 권사로 파송되던 1929년 3월에 스프레클스빌 지방의 모든 한인감리교회에 어린이 세례자가 59명이었고, 등록된 학습교인수가 94명이었는데 브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의 교세를 따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본 교회 교회 학교에는 5명의 교직원들이 있었고, 등록된 59명 학생이 평균 33명이 출석했다. 그리고 본 교회에는 예배당이 있었다.

1930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제25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함호용을 스프레클스빌 지방 부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에 지방 전도사로

어린이 세례수는 5명이었다. 1년간 성인 5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87명이 어린이 세례를 받았다. 안타깝게도 2명이 세상을 떠났다. 두 곳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3명의 교직원이 있었으며 132명이 등록하였는데 평균 32명이 출석했다. 지난 1년간 주일학교 비용으로 10달러를 지급하였고, 예배당 수리비로 1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세계 봉사비로 10달러를 헌금하였고, 연금과 구제비로 1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스프레클스빌 지방에 10개의 기도처가 있었으므로 브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의 통계를 따로 찾을 수는 없다.

함호용은 '성경연구의 진수'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수첩 크기의 용지로 72쪽이나 되었다. 이 글에서 그의 믿음을 살필 수 있다.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100주년 역사를 쓴 안형준은 이 글에서 네 가치를 지적하였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상제'와 '천부'를 자유롭게 사용했으나 가톨릭이 사용하는 '천주'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통



지방 전도사 자격증

를 방문하여 원근 각처에서 온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준호 목사의 사회로 환영회를 열었다. 위닝 목사는 '천연적 물질 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온 교우는 그의 간곡한 설교를 잘 들었다. 폐회 후 위닝 목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례를 한 후 오후 5시에 목사실로 모여 만찬을 나누었다.

1943년 3월에 모인 제38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마우이섬에 거주하는 한인 노동자를 위하여 송제스터를 순회 목사 파송하면서 함호용을 브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 지방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1944년까지 1년 후 스프레클스빌 지방에 등록된 교인은 23명이었고, 이 중 2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1년간 사례비로 교회로부터 12달러를 받았다. 이듬해 2월 27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마우이섬 선교 목사인 쉘트 목사가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 로마서 6장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봉독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날 참석한 온 교인들은 '신령의 재미를 많이 보고 신화하였다.'

함호용은 1944년 3월에 개최한 제39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마우이섬 스프레클스빌 지방의 순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브네네에서 거주하면서 순회 전도했다. 그가 파송 받은 그달에 12 한인감리교회가 있었고, 등록된 세례 교인은 23명이었다. 그해 11월 23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었다. 오전 10시 30분에 어른과 학생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 232장을 부른 후 함호용 전도사가 기도했다. 학생들이 찬송가 255장을 제창한 후 그가 감사절 역사를 소개했고, 함호용의 부인인 함해나와 그리고 문봉찬이 각각 기도한 후 교인 중에 감사절 강연을 맡았다.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른 후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은 각각 가지고 온 과일과 케이크와 소다 등을 배설하고 서로 나누며 '재미있게 지내고 신화하였다.'

함호용은 1954년 3월 27일에 향년 8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damien.sohn@gmail.com

1905년 5월 하와이 노동 이민의 꿈 안고 호놀룰루 도착 1930년 2월 부네네 제일한인감리교회에 지방전도사 파송 1944년 3월 마우이섬 스프레클스빌 지방순회전도사 파송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평일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718) 461-28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 예배: 오후 8시 수요일 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W)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성경연구: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361-9198,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예배: 오전 11:00 평일 예배: 오전 02:00 수요일 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회, 토 Tel: (718) 265-2584, www.kcb.org 14 Gravesend Neck Rd, Bayside, NY 1135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평일 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후 9:15 주일 예배: 오후 11:3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6: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전교인복합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8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 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ngsoonyong@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un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 예배: 저녁 7:00 수요일 기도회: 저녁 9:00 7시 45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영아)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성경연구: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nni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밴쿠버빌리델리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연구: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금, 오전 6:30 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일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목요일 (금) 오후 7:30 Tel: (604) 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야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8,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민선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507-4111, haninr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말씀과 땅 (20) - 사면초가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아침에 보니 레아라”(창 29:25)

신혼 초야를 치르고 깡 야곱이 당면한 상황이었다. 당연히 라헬 일 것으로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그 언니였던 것이다. 저녁이고(창 29:23) 또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기에 야곱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을 알고 라반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나이까”(창 29:25) -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따졌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전에 있었던 한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에서가...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

는 ‘형, 아우’를 가리키는 ‘ahd. 형을 피해 외삼촌집에 온 것인데 그 삼촌이 던지는 말이 마치 형 에서가 자기를 부르듯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창 29:15)

라반은 야곱에게 서로의 관계를 삼촌과 조카가 아닌, 고용주와 품꾼으로 하겠다라는 뜻을 건넨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남편이 되어 열 두 자녀를 거느린 아버지가 된 후에도 라반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창 30:28)

삼촌과 조카도, 또 장인과 사위도 아닌, 여전히 고용주와 품꾼의 관계일 뿐임을 다시 각인시키는 말이다.

30:1) 라헬이 야곱에게 한 말인데, 이때 ‘날게 하라’는 표현은 ‘달라’(hābā)는 명령법의 동사를 의역한 것이다. 자식을 ‘달라’는 라헬의 ‘명령’은 사실이 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썼던 표현이다. 개역개정에는 “내 아내를 주소서”(창 29:21)라고 공손한 말투로 읊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라헬의 명령과 동일한 hābā이다 - ‘내 아내를 달라’.

전에 야곱은 이 요구를 하기까지 라헬을 위해 칠년을 일하며 기다렸다. 그런 야곱에게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혼방으로 들여보냈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혼 이후 언니 레아가 이미 아들 넷을 낳은 후였으니, 어렵잖아 야곱이 자기를 위해 기다린 시간만큼 기다리고 꺼낸 말이

라”는 한 마디는 그의 존재감을 뒤 흐드는 말이 되었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죽겠노라”는 이 말이 라헬의 입에서 터져 나온 순간, 야곱의 집은 자매간의 싸움을 넘어서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간의 다툼까지 다시 꼬여버렸다. “죽이리라”(창 27:41) 버르던 에서의 분노 - 그 소리가 이제 이 집 안방 주인의 입에서 “죽겠노라”로 바뀌어 시기와 말의 폭력으로 야곱의 집을 에워쌌다.

그럼 레아가 야곱에게 건넨 말은 어땠을까?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창 30:16)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듯이(창 29:36) 라헬 역시 레아에게서 남편을 “빼앗”았는데(창 30:15), 전에 야곱과 에서가 “팔죽”으로 장자 명분 거래를 했듯이 이제는 라헬과 레아가 “합판채”(창 30:14)로

야곱에게 속은 에서 (가해자) 라반에게 속은 야곱 (피해자)

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너 복을 빼앗았도다”(창 27:34-35) - 야곱에게 속은 에서와 이삭의 대화.

‘속임’(rmh)을 공통으로 갖는 이 두 경험에서 야곱은 먼저 가해자였고 후에는 피해자였다.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창 27:37) - 에서의 울부짖음이 여호와와 복의 약속을 되돌릴 수 없었듯이, 야곱 역시 그의 혼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창 29:26) 그리고 나서 라반은 계획된 시나리오를 진행시킨다: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창 29:27)

사실 처음에 알아봤어야 했다. 야곱이 라반을 찾아와 처음 만났을 때 라반이 이렇게 물었다:

“네가 비록 내 ‘아우’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창 29:15)

물론 개역개정을 보면 ‘아우’가 아닌 ‘생질’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원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이렇듯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존재를 상시시키는 인적이었고, 에서에게서 가로챈 복이 야곱에게 내리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나서기라도 한 듯 야곱의 품삯을 자그마치 열 번이나 바꾼 고약한 고용주였다.(창 31:41) 야곱의 고백대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창 31:42)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야곱이 초래한 저지른 큰 잘못이 있다.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띠 안은지 한 주 후, 라반의 지침대로 레아의 동생 라헬이 야곱에게 작은 처로 주어졌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창 29:30) 결국 그의 집은 오래지 않아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데(창 29:31-30:24), 여기서 야곱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에서와 라반과의 갈등을 집안에서 다시 경험하게 된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창

27:34) - 야곱에게 속은 에서와 이삭의 대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창 30:2)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라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창 31:42)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야곱이 초래한 저지른 큰 잘못이 있다.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띠 안은지 한 주 후, 라반의 지침대로 레아의 동생 라헬이 야곱에게 작은 처로 주어졌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창 29:30) 결국 그의 집은 오래지 않아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데(창 29:31-30:24), 여기서 야곱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에서와 라반과의 갈등을 집안에서 다시 경험하게 된다:

남편 거래를 해 레아가 야곱을 부리게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샀노라’로 번역한 말은 야곱과 라반이 서로간에 흥정한 ‘품삯’과 동일한 어근 skr에서 파생된 단어로 ‘품꾼을 샀다’는 뜻이다. 집에서도 ‘품꾼’으로 전락한 야곱. 그래서인지 그는 열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얻는 내내 한 번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다. 라헬이 죽고 나서 막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꾼 것이 전부이다.

흥진 복으로 잘 살아야 할 야곱. 도망침으로 새 삶을 살기를 꾀한 그. 그런 야곱에게 일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의 삶과 그의 주변을 철저히 주재해 가신다 - 사면초가. 이 놀라운 섭리가 야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하나님 되심과 그 약속을 이행하심을 바로 목도하게 할 것이다.

spark4@gordonconwell.edu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함께함의 힘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 한국어프로그램이 오랜 세월 머물던 LA를 떠나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했다. 새 캠퍼스의 건물이나 시설은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던 이전 캠퍼스보다 훨씬 깨끗하지만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 따른 마음의 어려움도 많았다. 새 학기의 분주함이 가라앉은 시월 초에 캠퍼스 이전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했다. 통상적으로 개강예배, 중강예배는 재학생들과 교수님, 직원들이 모여 드렸지만 이번에는 동문들을 옮긴 장소에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동문회 단독방에 초대 글을 올리고 단독방에 없는 제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 새로운 캠퍼스를 소개하고 오랫동안 못 만난 졸업생들의 얼굴도 보고 싶어였다. 그러나 제일 간절했던 마음은 새 장소에서 동문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었다. 코비드 기간 동안 못 만나서였는지 많은 제자들에게서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오자 마치 손님을 초대할 주인처럼 갑자기 음식 준비, 장식 등으로 마음이 분주해졌다.

예배당일, 오랜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반가웠다.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온 교수님들과 제자들 한 분, 한 분의 학교를 향한 사랑이 감사했다. 그동안 보 관실에 넣어 놓았던 코비드도 꺼내고 재학 시 찬양 인도에 은혜가 많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했다. 캠퍼스를 옮긴 후 처음 드리는 예배였다. 동문들, 교수님들,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났다. 캠퍼스 이전 감사예배라기보다 마치 동문들의 홈커밍데이 같은 느낌이었다. 여러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신학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왜 우리 학교 신학대학원이 사명을 붙들고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예배 후에는 동문 목사님이 기쁨으로 마련해주신 음식을 나누며 삼삼오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가 주관하는 연말 모임은 있지만 매년 한 번씩은 동문들을 캠퍼스로 초대해서 홈커밍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캠퍼스 이전 예배를 잘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솟아났다. 그동안 혼자서 일 저 일 신경 쓰며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내 곁에는 든든한 아주사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 혼자 애쓰다 지쳐 버릴 때 함께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될 공동체라면 그 힘은 훨씬 커진다. 그래서 성경은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써 모이기를 권하며,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다.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를 나누고, 무엇보다 새 힘을 얻게 된 캠퍼스 이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850) 579-7576, Fax: (702) 253-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2) 802-1112, ecross@ye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 945-0288,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현):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현):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현):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현):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영 아 베: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 예: 오전 11:00 E M 예: 오후 7:00(목) 새 생 예: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 각 구역별로 한국 화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Gree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706 Wilmer Rd, Hoshart,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24(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rc.com 9424 S. Yelke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n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예비하신 은혜”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말씀 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아버지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적인 사랑을 아들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번제할 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확인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와 이레”라 하였습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쌓아 두신 은혜를 준비하실까요?

요즘 “은혜”란 은혜 복음성가가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불려지고 축하 행사장에도 불려집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불려집니다.

왜 일까요? 살아보니 역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삼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곳

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다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숨겨두신 큰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모리아산에 올라 가야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 문화생활을 즐기지만 막상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가별게 여겨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은혜 문화를 노래하고 즐겨도 신비로운 그 숨겨두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으로 “쌓아 두신 은

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경외함이란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된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되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 속에는 교회론적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별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대하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

다. 너무 쉽게 주장하고 행동하고 자기 의사를 따라 자기 주관적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신 그 크고 엄청난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살립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으로 주를 경외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cyd777@hotmail.com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 예배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직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중규 목사) 창립 45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지난 16일(주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중규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유형근 장로가 기도했으며 시온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동진 목사(KAPC 남가주교회장/성화장로교회)가 ‘은혜로 감당하는 기쁨(엡 1:1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동진 목사는 “모든 탕생은 하나님께 뜻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신”이라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과의 소통이 풀어진다면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다. 말씀을 읽으며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바란다. 그러면 부르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 이웃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생활은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언어훈련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언어훈련이 되어야 하며 직분자 가운데 언어훈련 소통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성품을 체현해야 이웃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왜 하

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야 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혜에 대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야 한다.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이다. 45주년 맞이하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중규 담임목사 집례로 2명 원로장로 추대, 1명 시무장로, 7명 권사, 5명 안수집사 장립 및 취임식이 있었으며 유한호 감보디아 선교사가 권면 및 축사한 뒤, 임신혁 장로가 대표로 담사했다. 이어 목회자 및 당회원들이 특별찬양했다. 이날 예배는 엄영민 원로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 예배에서 임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종교개혁, 여성들도...

<3면에서 계속>

그런 로마에 저항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평화롭지만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재산 양도는 이 도시에 경제적 이익 이상을 가져다주었다. 취리히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내전 없이 개신교도에게 공개적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이제 로마의 공개적인 적으로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녀를 보호했고 남편과 딸까지 주었다. 그리고 대중을 향한 카타리나의 리더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는 시의회에서 활동했다.

카타리나와 잔느는 단지 개신교로 회심한 여성 정치인과 여성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로마 가톨릭 왕실과 교회 정부의 부패한 시스템을 사용하

여 진리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로마의 성문은 무장한 교회에 비하여 결코 우세하지 않았다.

여성이 종교개혁에 기여한 세 번째 중요한 방식은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였다. 글쓰기는 아주 현대적인 형태 같지만, 중세에도 글을 쓰고 출판까지 하는 여성들이 더러 있었다. 교육과 문맹 퇴치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종교개혁은 수많은 개신교 여성 작가들을 만들어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여성들에게 지배적인 장르는 종교시였다. 개신교 여성들은 이 전통을 버리는 대신에 그 장르를 발전시켰다.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Marguerite de Navarre, 1492-1549)는 개신교 최초로 출판한 여성 시인이었다. 초기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해서 칼빈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시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시는 그녀의 영적 여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지 이 시들이 개인적인 묵상의 기록이 아니라 개혁주의 교리를 선포하는 데 드러나는 사실이다. 마르그리트의 마지막 주요 작품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완전하고 완벽한 구속 사역을 이룬 것을 강조하고, 그 사역을 향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 작품을 출판함으로써 그녀는 성자, 방종, 참회, 그리고 미사에 관한 로마의 가르침에 도전했다. 그녀의 작품은 결국 오직 믿음과 은혜

로만 구원받다는 진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였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신학적 내용을 담은 개신교 작품을 쓴 여성들도 있다.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로마 가톨릭 교리에 반해서 얼마든지 성직자도 결혼해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그것은 카타리나 젤(Katharina Zell, 1497 - 1562)이 사제기도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쓴, 매우 개인적인 방어이기도 했다. 카타리나 부부는 당시 성경법에 위배되는 결혼을 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카타리나 젤은 성직자들 사이에 만연한 매춘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교황이라면, 그런 교황이 신실한 결혼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 책에서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근거로 내세운 카타리나는 일종의 금기로 취급되던 결혼 문제를 공공 토론의 자리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결혼한 사제들에게 찍히는 낙인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도 기여했다.

시장이 흐르면서 회고록도 인기를 얻었다. 샬롯 드 모네(Charlotte de Mornay 1550-1606)는 남편의 삶에 대한 글을 썼고, 그 결과 그녀의 남편은 유럽 전역에서 유명해졌다. 근면한 노동과 신실함, 그리고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에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 그의 모습은 고난 속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기간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개인 성장과 여가 활용을 위해서 글을 쓰기도 했지만, 또 많은 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개혁 교회에 위해서 글을 썼다. 그들의 명백한 지적 능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두뇌를 사용해야 한다는 개신교의 신념과 일치했다. 또한 차세대 종교개혁 여성들을 교육하는 개신교 어머니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차세대 어머니, 작가, 설교자, 여왕을 키우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시대별 또 인물별로 분류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식으로 대중 흘러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어떤 여성들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영역 전부에서 활약했다. 또 어떤 이는 한 영역에서 특별히 탁월했다. 그들이 끼친 영향은 실로 놀라웠는데,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구주자 전지전능하기 때문이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들이 지금도 변치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대해도 되는 것이다.

www.ligonier.org

Table with 5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Columns includ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관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Each entry includes a pastor's name, photo, and service times.

동부교계 게시판

UMC "예배와 찬양을 통한 화합" 찬양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는 "예배와 찬양을 통한 화합"이라는 주제로 한 연합회 찬양예배가 뉴저지에 위치한 베다니교회(담임 백승린 목사)에서 11월 6일(주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참가교회는 남부뉴저지감리교회, 뉴욕만백성교회, 뉴저지연합교회, 베다니교회, 체리힐제일교회, 후리싱제일교회이다. 베다니교회 주소: 491 Alps Rd. Wayne, NJ 07470

▲문의: 베다니교회 사무실 973-694-3880

2023년 KAPC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공고한다. 고시과목은 제출고시(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와 필기고시(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이며 제출서류와 제출고시 서류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시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웹사이트 kapc.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시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고시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문의: 고시부 부장 손기성 목사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heepark91@gmail.com

뉴욕기독교회, 심형진 목사 초청 찬양집회

뉴욕기독교회(담임 고성민 목사)에서 심형진 목사(뉴저지 온누리교회 예배담당)를 초청하여 12월 9일(금) 오후 8시30분 찬양집회를 갖는다. 뉴욕기독교회 주소: 263-10 Union Turnpike Glen Oaks, NY 11004

▲문의: 뉴욕기독교회 718-343-1593

뉴저지 주섬김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 Maywood에 위치한 주섬김교회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후보자격: KPCA 소속 목사이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신학석사 M.Div 이상 학위 소유자로서 만 55세 이전이며 한국어,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미국내 목회활동과 법적 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및 사모), 본인 및 가족 소개서, 신앙 고백 1부,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졸업 증명서 (대학 및 신학 대학원), 목사 안수 증명서, 추천서 2부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 요망), 최근 설교 온라인 링크 또는 CD (3부). 제출 마감: 2022년 12월 18일

▲문의 및 제출처: 청빙 위원장 어용호 전도사 servinggod-fellowship@gmail.com

버지니아헬로쉽교회 담임목사 청빙

버지니아 헬로쉽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사용 가능하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및 근로 가능.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정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1부(교회 제공 양식 다운로드), 자기 개인 간증 및 소개서 1부 (가족소개 및 사진 포함), 사모님 신앙 간증문 1부, 목회철학 및 비전 1부, 목회 계획서 1부, 설교 동영상 2편(1편은 6개월 이내), 추천서 2부 (최소 1부는 목사님 추천서), 목사안수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서약서 1부 (교회 제공 양식 다운로드) 제출마감: 2022년 11월 30일 (이메일로만 접수 및 서류제출 가능) www.fellowshipva.com

▲ 문의 및 서류제출: 김시홍 장로 pastorsearhvcf@gmail.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류응렬 목사 초청 설교 특강 및 기일부흥회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사, 신학생 27명 참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10월 18일(화), 19일(수) 이틀에 걸쳐 "가을 부흥회와 특강시간"을 가졌다. 강사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신학석사(Th.M, 설교학) 교수로서 설교학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19일(수) 오전 특강은 공개강좌로 진행됐으며 Zoom을 통해 석사학 강의를 수강하는 27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포함한 신학생들이 한국, 캐나다, 키르키즈스탄 등지에서 온라인 상으로 참석해 강의를 경청했다. 류 목사는 특강 첫째 날에 "청중을 깨우는 설교



둘째날 수요일 오전 강의 후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 했으며, 둘째날은

"미셔널 프리칭(Missional Preaching)",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성경적 목회자와 설교자,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강의를 진행했다. 류 목사는 미셔널 프리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신 예수님, 선교적인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선교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전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항상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적용점 발견을 통해 그리스도와와의 연결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류 목사는 수요일 저녁 가을 부흥회를 통해 "한 줄 인생(사사기 3:31)"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류 목사는 "우상을 섬겼던 이방 집안의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불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성경에는 한 줄 나오고 있지만 그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멋지게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우리도 삼갈과 같이 막대기 밖에 없는 미천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며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부흥집회는 박용규 목사(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M 교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김재상 기자)



연합목회자성령컨퍼런스에서 이상목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을 성령의 불로!"

2022 목회자 복음과 성령집회 컨퍼런스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이상목 목사(펜실베이니아 이어리한인장로교회)를 강사로 한 달간 (11월 15일-12월 14일) 뉴욕 목회자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상목 목사는 Zoe Ministries USA 대표이며 사모영성세미나와 선교사복음과성령집회의 주강사를 역임한바 있다. 이상목 목사는 이번 집회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지난 9월에 가진 Zoe Ministries USA 주최로 가진 연합목회자성령컨퍼런스를 통해 3일간 50여명의 목회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다. 집회를 마치고 많은 목회자들께서 이 성령의 불을 계속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있었고, 뉴욕갯세마네교회 이지용 목사님께서 뉴욕의 영혼들을 위해 성령 집회를 시작하고자 제의를 주셔서 이번 한 달

간 집회를 함께 계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는 목회자 성령 세미나와 평신도 성령 집회를 "뉴욕을 성령의 불로"라는 주제로 가지게 된다. 이 목사는 "이번 성령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뉴욕에 계시는 목회자들이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기도의 불을 계속 불어서 뉴욕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번 집회는 한달 간 매주 화, 수 이틀간 주중에 갖게 된다. 본 집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목회자 세미나: 11월 16일(수), 11월 30일(수), 12월 7일(수),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세미나 후 점심식사 제공)

▲평신도 집회: 11월 15-16일(화, 수), 11월 29-30(화, 수), 12월 6-7일(화, 수), 12월 13-14(화, 수) 저녁 7시 30분

(김재상 기자)



목회자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욱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광야 40년 모세 독특한 영성"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10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에 퀸즈한인교회 바울관 2층에서 개최됐다.

목회자 세미나 강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 교회)는 '모세의 영성 (행 7:29)'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승욱 목사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영성을 통하여 훌륭한 리더로 사용하셨다. 모세의 삶을 통한 영성은 예배자의 영성, 목자의 영성, 아비의 영성, 나그네의 영성이며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가 아닌 예배자의 영성으로, 리더가 되기 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유익한 성품을 가진 목회자의 영성으로, 자녀들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지는 아비의 영성으로, 지연된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고 백하는 나그네 영성으로 목회자의 길을 잘 마치고 주님을 잘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욱 목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교의 준비, 갈등 해결, 멘토, 코비드19 이후 제도, 목사님의 광야, 초년 목회자,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목사는 "전에는 본문에 설교 비중을 두었다면 지금은 성도들에게 비중을 두고 있다. 성도 목사(미서부지방회, 아리조나주의 교회), 회의목사(임회철 목사(미국서남지방회, 더나눔교회), 회계 이충식 목사(미국동부지방회, 한길교회), 부회계 이미애 목사(미국서부지방회, 엔젤스교회) 등을 선출했다.

6년 동안 총무로 수고한 양승민 목사, 그리고 5개 지역 지방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20주년 기념으로 △교단 목사안수 20년 및 단독목회 10년 이상 근속 목사 △교단 목사안수 후 20년 교단 근속 목사 △교단 목사안수 후 단독목회 10년 이상 △교단 목사안수 후 단독목회 10년 미만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정기총회 안전토의를 통해 △미주총회 본부 건물 확보를 위해 한국 총회에 그 후원(금)을 청원 △한국총회 미주총대 복원부, 영상축사, 광고 김영일 목사(총무), 축도 김중현 목사(전성결대학교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아네티)

회계 이충식 목사(미국동부지방회, 한길교회), 부회계 이미애 목사(미국서부지방회, 엔젤스교회) 등을 선출했다. 6년 동안 총무로 수고한 양승민 목사, 그리고 5개 지역 지방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20주년 기념으로 △교단 목사안수 20년 및 단독목회 10년 이상 근속 목사 △교단 목사안수 후 20년 교단 근속 목사 △교단 목사안수 후 단독목회 10년 이상 △교단 목사안수 후 단독목회 10년 미만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정기총회 안전토의를 통해 △미주총회 본부 건물 확보를 위해 한국 총회에 그 후원(금)을 청원 △한국총회 미주총대 복원부, 영상축사, 광고 김영일 목사(총무), 축도 김중현 목사(전성결대학교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 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 D)
-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 227차 해외성회 (227th Overseas Assembly)

- 1(화) 인천공항 KE703 09:55분 출발 - 일본 나리타 12:20분 도착
- 1(화)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총회신학교 (학장 정스대만 목사)
- 2(수)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갈멜산힐링센터 중국인특별성회 (원장 김태실 선교사 (90) 6535-9118)
- 3(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노숙인 목요정기전도집회 (준비위원장 김태실 선교사 및 일본선교회)
- 4(금)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사랑의교회 (Rev Stepan Jung)
- 5(토) 일본 나리타공항 KE 704 14:00 출발 -> 인천공항 (5토) 16:50도착
- 7(월)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 8(화)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느헤미야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 9(수)~10(목) 저녁 시흥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 10(목) 오전 (제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 총연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 10(목) 오후 서울행복교회(윤창규목사) 대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 12(토) 오전 안산 성안교회 (이춘식 목사) 010-4939-0675
- 14(월)~16(수) 진안 임마누엘 병천수양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 부목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 17(목) 서울 해병대 사랑교회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568-9006
- 18(금) 안양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010-3710-5608
- 21(월) 저녁 충주미쓰비시중앙교회 (문동철 목사 서순관 목사) 010-7136-7669
- 21(월) 오전 대부도 엘림 수양관(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 22(화) 오후 서울대학교 ABKI 총동문회 문화행사 장소 서호미술관
- 23(수) 오후 오산리 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Good TV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오영대 목사 총괄 부부장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량 목사) 010-7220-0733
- 28(월) 저녁 익산 클로버센터 (원장 강은숙 목사) 010-3670-899930
- 29(화) 오후 익산 은총교회 (노규애 목사) 010-3765-0658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20회 정기총회 후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20회 정기총회, 총회장 장동신 목사

"다시 온전한 복음화, 성결의 세계화"

예수교미주성결교회는 제20회 정기총회를 "다시 온전한 복음화, 성결의 세계화"(벤전 1:16)라는 주제로 10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뉴저지 오슬의목양교회(장동신 목사)에서 열렸으며, 총회 후에는 나 이야기라 투어가 이어졌다. 20주년을 맞이한 미주예성 총회는 현재 5개 지방회에 53개 회원교회와 12개 회원 선교기관이 속해있으며, 회원목사는 105명이다.

17일(월) 오후 6시에 오늘의 목양교회에서 개회예배가 열렸다. 예배는 사회 장동신 목사(

총회장 대행), 기도 오명석 목사(미동부지방회), 성경봉독 양승민 목사(캐나다동부전도지방회), 설교 신현파 목사(교단총회장), 헌금특송 임회철 목사(더나눔교회), 헌금기도 이윤수 목사(미서부지방회), 공로장 및 공로패 수여, 축사 이명환 목사(증경 전북지방회)와 노윤식 목사(주남앞에제일교회)와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영상축사), 광고 김영일 목사(총무), 축도 김중현 목사(전성결대학교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을 통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 및 120주년 기념도서 출간 기자회견

“한인들의 역경과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될 것”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가 내년 1월 제20회 미주 한인인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20일(목)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웅공식당에서 갖고 행사를 소개했다.

먼저 내년 1월 12일(목) 오후 3시, 6.25전쟁 당시 흥남 철수 피난선이었던 샌퍼드로에 정박되어있는 SS 레인 빅토리호 선박에서 기념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사람들(가제)’ 출간 기념식 및 축제를 통해 한인들의 역경과 도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1월 13일(금)에는 LA 시청과 캘리포니아 주청사, LA카운티 홀에서 제20회 미주 한인인의 날 선포식 및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저녁에는 LA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506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71)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1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미주 한인인의 날 기념 작가전도 마련된다.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 한미 공동대회장으로는 한국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국무총리), 미국에서는 김영길 AKUS 총회장(America Korea United Society)이 위촉됐으며, 기념 감사예배 대의장은 한규성 AKUS 회장, 양성전 목사(한국 국회조찬 지도위원),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맡았다.

이번 행사의 기획 총괄을 맡은 김일권 박사(한미동맹협회 회장)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정리하면서 ‘세계 속의 한민족, 세계를 이끄는 한민족’임을 선포하고, 한민족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며 “특별히 다민족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미주 한인사회의 다민족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재단LA 이병만 회장은 “미주 한인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을 차세대 한인들



미주한인인날 행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명 총장, 김일권 회장, 이병만 회장, 김향로 장로, 뒤줄 왼쪽부터 임경애 부회장, 정정숙 부회장, 김영구 목사

과 미국의 정계 및 다민족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미 주류사회 전반에서 미주 한인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미주 한인인의 날이 처음 선포된 때가 2004년이었으며 내년이 20회째 된다”며 “해마다 선포식이 열렸는데 25년째 가 되면 국가에서 정식으로 국경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국경일로 지켜지는 날이 속이 왔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한편 한인 이민 120주년에 맞춰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 발간된다. 이 책의 편집책임은 맡은 이상명 박사는 “내년 초에 발간 예정이었는데 미주 한인인의 날 전으로 발간 일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여겨 12월 중으로 책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다 타계한 인물 가운데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을 넘어 미국과 세계에 공헌한 한인 16인을 선별,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고 한인 이민사를 회고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됐다. 특별히 하와이 이민 여성들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며 “그들은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했으며 독립자금을 모으는 일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본 책자는 △김마리아(김인수 박사, 팔호 안은 글쓴이), △안창호(김창환 박사), △강영우(김홍신 박사), △임동선(남종성

박사), △이승만(박정환 박사), △이휘소(박창현 박사), △백남



사우디시내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2 사우디 시내산 학술세미나

구역시대 유물과 유적들에 대한 자료 공개

2022 사우디 시내산 학술세미나가 세마포호도스(대표 켈 안 선교사) 주최로 지난 15일 나침반교회(담임목사 민경엽)와 17일 새생명비전교회(담임목사 강준민)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김승학 장로(엑소아크선교회 이사장, 딸기 나무, 딸기나무2 베스트셀러 저자, 사우디 국왕 및 메카 주지사 한방주치의)가 감사로 나서 출애굽의 시내산이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있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오즈산이 성경에 기록된 실제 시내산이라고 소개하며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과 전문적 고고학 증거를 바탕으로 구역의 시내산과 미디안 광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음을 소개하면서 직접 탐험한 유물과 유적들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김 장로는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시내산은 총 16군데인데 성경을 비추어 볼 때 한 군데도 일치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사우디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실제 시내산 위치와 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의

준(박현옥 박사), △서재필(송인서 박사), △유일한(육세철 논설위원), △이대위(유석중 목사), △김은국(이상명 박사), △백일규(이성숙 작가), △새미리(이예진 연구원), △홍명기(이중운 작가), △김계용(임윤택 박사), △하와이 한인이민여성들(최윤정 박사)등 120년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빛낸 16명을 소개하는 책이다. 책은 350페이지 분량으로 한인 정치인과 공무원, 과학자, 계몽가, 종교인, 하와이 이민 여성 등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의 업적을 담았다. 본 도서는 추후 영문으로도 번역이 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제19차 멕시코 교도소 사랑의 담요 보내기

Jesus Mexico(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매년 겨울철 멕시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담요 보내기를 실시한다. Jesus Mexico는 많은 재향원들과 여러 교도소들, 캐리밴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담요 후원금은 Jesus Mexico: 20501 Anza Ave. #23 Torrance, CA 90503 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최재민 선교사 (213-675-7575)

유수연 후보 후원의 밤

가주 67지구 하원 유수연 후보 후원의 밤 행사가 29일(토) 오후 4시 5360 Buck Hill Pl,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 문의: (714)388-7684

앨버틴사랑의교회 임직감사예배

앨버틴사랑의교회(담임 박현식 목사 1160 Roosevelt, Irvine)는 30일(주일) 오후 4시 임직 감사예배를 갖는다. ▲ 문의: (949)954-5234

충현선교교회 제9회 세계관학교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제9회 세계관 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의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제9회 세계관 학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45분에 갖게 되며 회비는 \$40(Child Care 포함)이다. 일정은 11월 1일 미디어전쟁(강사: 이진아 전도사), 8일 신조파와 성경체성(강사: 민종기 목사), 15일 좋은나무성품과 세상 맞서기 & 22일 좋은나무성품과 세상 맞서기(강사: 이영숙 박사), 28일 자녀교육, 교회, 미국법(강사: 주성철 목사) ▲ 문의: (818)549-9191

남가주 장로성가단 정기음악회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장진영) 정기연주회가 30일(주일) 오후 6시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10)502-9513



푸른초장의집 후원 제3회 함께하는 음악회에서 연합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푸른초장의집 후원 제3회 함께하는 음악회

가정폭력피해자들의 회복을 기도하는 찬양의 밤

오렌지미션교회(단장 이경일)가 주관하는 푸른초장의집 후원 제3회 함께하는 음악회가 23일(주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함께하는 음악회 준비위원장 이경일 오렌지미션교회 단장은 “지난 3년간 펜데믹으로 제대로 된 모임도 잘하지 못했는데 오늘 같이 모여 찬양하며 음악회에 참석한 분들과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팬데믹 기간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작은 힘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오늘 밤 음악회가 열리는 감사한인교회 예배당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란다. 아울러 푸른초장의 집 사역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엄미나 아나운서(CBS기독교 방송)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이경일 단장이 환영인사했으며 이재근 목사(오렌지미션교회)가 개회기도 했다. 이날 음악회는 오렌지미션교회,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그랜드 페스티벌 코어, 라흠 여성합창단이 연합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지휘 강민석)이 첫 번째 순서와 마지막 순서를 맡았으며 ‘예수’, ‘놀라워’, ‘십자가의 길’, ‘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등을 불렀다. 이어 테너 백동휘, 소프라노 이영주, TKC 앙상블 콰텟(바이올린 황여주, 베주희, 비올라 권이현, 첼로 장성희), 오렌지미션교회(지휘) 특별출연하여 이날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음악회는 연합합창단이 앵콜곡 ‘은혜’를 청중들과 함께 부른 뒤 백승호 목사(감사한인교회 찬양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푸른초장의 집 빅토리아 흥 디렉터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푸른초장의집 후원 제3회 함께하는 음악회에서 백정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성한인교회 가을부흥회에서 이용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성한인교회 2022 가을 말씀부흥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자”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벧후 3:11)이라는 주제로 2022 가을 말씀부흥회를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신동철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열린 23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임선기 장로가 기도했으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남성중창팀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이용걸 목사는 ‘바른 삶(창 47:1-12)’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라고 물은 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을 때를 살라고 한다.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될 일이 많고 잘못된 일이 많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 성공을 위해 산다면 후반전

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의 아이디어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면전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어주신다. 둘째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육신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시대 모든것이 막힌 시대 가정과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감싸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이용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휴스턴한빛교회 추계부흥회

“출구 없는 시대! 대안을 보여주는 교회공동체 되어”

휴스턴한빛교회(담임 정영락 목사) 추계부흥회가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회했다. 22일(토) 저녁 집회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왕하 2:12-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백정우 목사는 “이 시대는 많이 아픈 시대이고 사람들마다 상처가 많은 시대이며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 많은 이들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사는 시대”라며 “이 시대에 대안공동체가 되어주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목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참 많다. 하지만 언제나 먼저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왜 우리는 교회 성장을 해야 하는가?이다”라고 말하며 “이 중요한 질문이 생략된 채 모두가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백 목사는 “엘리아가 엘리야를 통해 받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줄지 구하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다”며 “갑절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둘째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백 목사는 “휴스턴 한빛교회는 부흥성장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되어야 한다. 상처가 많고 출구가 없는 시대에 대안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교회공동체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데 그전에 교회 성장을 왜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휴스턴 땅과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 한빛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남달리 받은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양성취재)

이 교회가 건축 포기하고 한 일...한부모·결식아동 돕기

높은뜻승의교회 '열매나눔재단' ... "빈곤구제와구조변화노력병행"

성경 속 초대교회 신자 고넬료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항상 기도하던(행 10:4) 초대교회 신자다. 고넬료처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한부모 가정, 끼니를 굶는 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을 돕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가 많다. 대표적 단체 중 하나가 열매나눔재단(대표 이장호 목사·이하 재단)이다.

높은뜻승의교회(김동호 목사)가 2003년 예배당 건축을 포기하고 2007년 그 종착점으로 세운 곳이다. 김동호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여겼다. 이 재단은 여성가장, 결식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립을 활발히 돕고 있다.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여성가장 지원. 여성가장에게 네일숍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네일숍 겸 인큐베이팅 센터에서다. A씨는 이곳에서 인턴을 마치고 지난달 창업했다. 그는 재단 직원들에게 쓴 손편지에서 "불과 8개월 전만해도 '근자감'으로 살았던 내가 실무적인 기술을 배우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했다. 두 아이 엄마인 그는 재단 네일숍에서 일할 때부터 창업을 준비했다.

A씨는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재단 네일숍에 다니는 동안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습하고 매일 테스트를 하면서 후배 인턴들과 선의의 경쟁을 했다"며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했다. A씨는

이렇게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인턴 기간 익혔다. 이 과정을 거쳐 그는 오래 전 꿈인 창업에 하게 됐다.

A씨는 "딸 아이가 '가게가 공주님 집 같고(가게에 있는) 엄마는 공주 같다'며 좋아한다"고 뿌듯해했다. 그는 "실제 창업을 해서 손님에게 내 네일아트를 시술하니깐 더 재미 있다"며 "잘 운영해서 언젠가 직원 2~3명과 함께 일하는 네일숍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재단은 2017년부터 네일숍 인턴 20여명을 배출했다.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도 30명 넘게 했다.

2016년부터 결식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했다. 지원대상 아동은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 2285명이었다. 끼니 나눔은 한국교회 가 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1988년 시작된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 밥퍼나눔운동 본부는 거의 매일 1000명이 넘는 노숙인 등에게 밥을 나눠줬다.

재단은 2012년부터 또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서울시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민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연이율 1.8%로 최대 3000만원을 빌려준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손 내민다.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를 포함한 9개 교회는 만 18세에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선한울타리'를 한다. 청년들이 살 공간 마련을 돕고 명절마다 초대해 시간을 함께한다. 청년의플(대표 이종수)은 신용도가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미래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을 하면서 연이율 3%로 최대 400만원을 빌려준다.

희원함께(공동대표 남기업 방인성)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해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희권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고리대금업자들을 질타했고 독일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다"며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조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인턴 기간 익혔다. 이 과정을 거쳐 그는 오래 전 꿈인 창업에 하게 됐다.

A씨는 "딸 아이가 '가게가 공주님 집 같고(가게에 있는) 엄마는 공주 같다'며 좋아한다"고 뿌듯해했다. 그는 "실제 창업을 해서 손님에게 내 네일아트를 시술하니깐 더 재미 있다"며 "잘 운영해서 언젠가 직원 2~3명과 함께 일하는 네일숍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재단은 2017년부터 네일숍 인턴 20여명을 배출했다.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도 30명 넘게 했다.

2016년부터 결식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했다. 지원대상 아동은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 2285명이었다. 끼니 나눔은 한국교회 가 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1988년 시작된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 밥퍼나눔운동 본부는 거의 매일 1000명이 넘는 노숙인 등에게 밥을 나눠줬다.

재단은 2012년부터 또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서울시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민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연이율 1.8%로 최대 3000만원을 빌려준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손 내민다.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를 포함한 9개 교회는 만 18세에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선한울타리'를 한다. 청년들이 살 공간 마련을 돕고 명절마다 초대해 시간을 함께한다. 청년의플(대표 이종수)은 신용도가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미래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을 하면서 연이율 3%로 최대 400만원을 빌려준다.

희원함께(공동대표 남기업 방인성)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해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희권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고리대금업자들을 질타했고 독일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다"며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조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마제국 흔든 기독교의 힘은 개방성...

이방인 끌어안아라...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안산 다문화화식거리. 한국어도 중국어와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간판이 더 자주 보이는 이곳에 28년 전 박천용(60) 다문화교회 목사가 설립한 안산이주민센터가 있다. 지난 19일 찾은 이곳에선 박 목사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온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소통하는 이들의 대화 주제 중 하나는 '난민'이었다.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나아지면서 최근 각국 난민이 꽤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난민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지요. 한국교회도 이주민을 넘어 난민선교를 특화해야 할 겁니다."

1994년 이주민 선교를 시작한 박 목사는 '한국 다문화 박사 1호' '이주 노동자의 대부'란 수식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시아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 부부의 자녀를 일컫는 '코시안'이란 가치 중립적 용어를 만들어 국내에 보급했으며,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국경 없는 마을' 운동 등을 펼쳐 이주민 인식 개선 활동에 힘썼다. 고용허가제와 거주국인지원조례, 다문화가정지원법 등의 입법 과정에도 민간 대표로 참여했다.

여러 성과를 냈지만 모든 일이 순탄키만 한 건 아니었다. 사역 초창기, 지역주민은 박 목사의 활동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가 여파로 반월·시화 공단을 떠나는 한국인 노동자가 늘고 그 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채우면서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하지만 찾아오는 이주 노동자가 점점 증가하고 센터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잘사는 방안을 찾는 곳'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지역주민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렇게 90년대 본격 시작된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는 이제 국내 이주민의 눈물을 닦아준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27년 도시미션이주관을 섬긴 나섬공동체(대표 유해근 목사)를 비롯해 주요 대형교회 역시 이주민 선교에 적극 나섰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안산동산교회 주안장로교회 등은 언어·국가별 예배 공동체를 꾸려 이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신앙 훈련에 힘쓴다. 이주민 선교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열심인 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란 예수의 말씀 때문이다.(마 25:35)

박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는 변방이 아닌 주류"라면서도 "약자와 동행했던 초대교회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가 주변 이방인과 사각지대를 부지런히 돌볼 것"을 당부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제국을

기준으로 변방에서 일어난 메시아운동의 한 갈래였다. 이런 미약한 종교운동이 어떻게 제국과 세계를 뒤흔드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된 걸까(그래프 참조). 전문가들은 '나그네 환대 정신'을 그 주요 원인으로 본다.

선교신학자 이명석 아신대 국제교육원 교수는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사회 변혁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던 건 각자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약자의 어려움을 같은 약자의 눈으로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복음을 몸소 실천한 초대교회 영성은 팬데믹 시대를 지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성서신학자인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 역시 "기독교 복음은 가정 같은 '친밀함'과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넘는 '개방성'이 특징인데 이 두 상반된 경향이 공존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 자기 집에 나그네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환대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으로 될 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적 무슬림 선교보다 먼저 상호 이해를"

30년 된 한국이슬람연구소

한국이슬람연구소(소장 김아영 교수)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연구소는 "이슬람하면 아라비아나 이집트와 산유국을 떠올리던 1992년에 시작해, 이슬람 포포비아(Islamophobia·이슬람 공포증)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까지 움츠러든 시기를 지나, 보다 객관적 지식에 기반을 둔 선교적 태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기독교 교리를 일방적으로 무슬림에게 전하기보다는 먼저 무슬림에게 있는 그리스도와 인간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고 선교 현장의 경험을 더해 무슬림 선교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

어 가자는 취지다. 소장인 김아영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선교학 교수는 "한국교회 이슬람권 선교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이슬람 관계 문제 연구, 이슬람 선교를 위한 건강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드베리 연구공동체는 2020년 설립된 한국이슬람연구소의 자매기관으로 교계 유일의 무슬림 크리스천 관계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열린 선교를 강조하는 J 더들리 우드베리 미국 풀러신학교 교수의 이름을 딴 기관이다.

"800원으로 온정을 나눠요" ...연탄 한장의 힘!

25년째 연탄나눔 봉사 펼치는 허기복 목사

'평균연령 80세'인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은 올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물은 주택 안으로까지 밀려들어와 무릎까지 들이쳤고, 겨울을 대비해 쌓아둔 연탄은 비에 휩쓸려갔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재해로 상실감이 휩싸였다. 다가오는 겨울이 두렵다. 이들이 결국 도움을 요청한 이는 밤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다. "연탄이 없다"는 전화 한 통에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허 목사를 지난 24일 화훼마을에서 만났다. 그는 올해로 25년째 연탄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연탄은행 후원이 크게 줄었다고 들었다.

"코로나19 여파에 경제불황까지 겹치면서 연탄 후원과 봉사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57%, 41% 이상 줄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작은 기대를 해봤지만, 아직 반응이 소극적이다.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다. 현재로서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다.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가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폭우로 집집마다 연탄이(비에) 쓸려가거나 부서졌다는 피해 보고가 늘었다. 일단은 급한 불만 끄는 수준이다.

-이번 캠페인 주제가 '따뜻

한 대한민국 만들기, 경제불황, 연탄은 밥이 되다'이다.

"사실 어르신들한테 밥만큼 중요한 것이 연탄이다.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힘들 듯이, 연탄이 없으면 맹추위를 맨 몸으로 견뎌야 한다. 건강이 쇠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00원이다. 한 장을 태우면 최대 6시간까지 간다. (가구당) 하루에 연탄 5장을 태우는데, 4000원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회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렇다. 특별히 개척교회와 중소형 교회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금융사역에 힘을 더 쏟으면 좋겠다. 구제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지만, 이면에는 같은 신앙인임에도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한국교회가 '낮음에 대한 고백'이 어려워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도 함께 달린 6km... "아프리카에 우물 만들어요"

월드비전 '글로벌 6K' 캠페인... 14개 교회서 2000여 성도 참여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2022 글로벌 6K 포 워터 러닝'(이하 '글로벌 6K')에 14개 교회 2000여명의 성도가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6K'는 아프리카 아동에게 깨끗한 식수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이 6km를 함께 달리는 행사다. 월드비전은 참가비를 아프리카 물 부족 국가에 우물을 만드는 사업에 사용한다.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경기도 화은교회(정희진 목사) 발달장애부서 '늘품' 소속 아이들도 함께 달려 눈길을 끌었다. 화은교회는 발달장애인 5명을 포함해 부모님과 봉사자 48명이 완주했다. '늘품'

봉사자 임재석 집사는 "우리 아이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

사정에 맞춰 다른 곳에서 '글로벌 6K'에 참여한 교회도 있었다. 경기도 기록문화재단 교회(유정상 목사)는 교회 인근 운정호수공원에서 640여명의 성도와 함께 달렸다. 가족 단위, 셀 단위로 참석한 성도들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교제했다. 오는 29일에는 서울 신촌성결교회(박호준 목사) 성도 900여명이 경의선 숲길에서 행사를 여는 등 아프리카 아동을 위한 교회의 사랑은 계속될 예정이다.

가족 '특새' ... "애들아,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가자"

경북 김천 은헤드림교회

하루만 갈 생각이었다.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온 가족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첫날 남편과 아내, 여섯 살짜리 아들, 세 살배기 딸이 교회를 찾았다. 기도가 끝나면 교회 성도들이 마련해 준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아침을 먹는 건 오랜만이였다. 그리고 닷새 내내 기도회에 참석했다. 어린 아들의 입에서 "내일도 가자"는 말이 나왔다. 엄마 아빠는 앞으로 새벽기도회를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경북 김천 은헤드림교회(최인선 목사) 이종순(56) 집사가 전해 준 딸네 가족의 '특새(특별새벽기도회) 참석 이야기'다.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가자'를 제목으로 한 이 교회 프로젝트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기도회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졌다.

1분이라도 더 눈 붙이고 싶은 시간인 '새벽 6시'에 시작된 기도회에는 엄마 등에 업혀온 갓난아기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까지 자리를 채웠다. 기도가 끝난 뒤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른들은 일터나 집으로 향했고, 학생들은 교회에서 기도회 기간 마련해준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유치원에 가는 아이도 딸네 가족의 '특새(특별새벽기도회) 참석 이야기'다.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가자'를 제목으로 한 이 교회 프로젝트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기도회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졌다.

1분이라도 더 눈 붙이고 싶은 시간인 '새벽 6시'에 시작된 기도회에는 엄마 등에 업혀온 갓난아기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까지 자리를 채웠다. 기도가 끝난 뒤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른들은 일터나 집으로 향했고, 학생들은 교회에서 기도회 기간 마련해준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유치원에 가는 아이도 딸네 가족의 '특새(특별새벽기도회) 참석 이야기'다.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가자'를 제목으로 한 이 교회 프로젝트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기도회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졌다.

은헤드림교회는 코로나 기간 멀어졌던 교회와 가까워지자는 의미로 올해 '주님과 함께 교회를 가까이'라는 표어에 맞춰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도식목일'이었다. 자연을 위해 나무를 심듯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를 심는 프로젝트로 21일(세이레) 이상 개인적으로 교회를 찾아 기도하도록 했다.

이번 새벽기도회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창세기 26장 18절을 모토로 삼았다. 최 목사는 "코로나 후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회복은 아프거나 망가졌을 때 쓰는 말"이라며 "창세기에서 이삭은 새 우물을 파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다가 블레셋 사람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판다. 우리도 잠시 멈췄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1)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자신을 평가하고 평가받는데 익숙해지라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선교사들로부터 분기별, 연도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거기에는 재정과 사역 보고가 중요한 부분이다. 선교단체가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과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는 것은 책무성 부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의 정서는 평가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학교에서 한국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도 누가 추천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나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하기가 많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만큼 우리들의 문화에는 평가라는 말이 판단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당한 평가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바른 평가는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평가의 대부분은 선교단체들에서 선교사들로부터 분기별, 연도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거기에는 재정과 사역 보고가 중요한 부분이다. 선교단체가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과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는 것은 책무성 부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의 정서는 평가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학교에서 한국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도 누가 추천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나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하기가 많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만큼 우리들의 문화에는 평가라는 말이 판단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당한 평가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바른 평가는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학생선교단체와 연합하여 정규모임과 전도 집회 등을 하였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데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캠퍼스 주위에 교회를 세워 (City on a hill Mission Church) 주일예배와 수요일 오후에 성경공부, 어린이 사역,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해온 그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말하고

게임을 다했으며 둘러대는 핑계는 모두 부도덕하고 비난 받아 마땅한 거짓말로 보였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지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기후가 민족적 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나의 부족함 때문인데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문선교사는 사역을 하면서 일어난 여러가지 가운데 사역적 반성으로 "설익은 열매 따먹기"라고 표현하며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과오는 너무 성급하게 현지인의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고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영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과도한 사역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주지 못했다고 반성하였다. "많은 선교사들이 빨리 열매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인해 막 운전면허를 딴 현지인들을 고속도로로 내모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

했다"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 문 선교사는 '선교사-사랑 =?' 라는 공식에 진지하게 답을 생각할 때 그 답은 제로, nothing, 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지인들을 사역과 목적이 이끄는 삶에 속아 현지인들을 깊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문 선교사의 반성문을 통해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문화적 반성의 부분은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위해 사전에 얼마나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지를 보게 된다.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 선교사는 한국에서 대학교와 신학교를 나오고 문화적으로 탁월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초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타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위한 교육을 더 받아야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디아스포라들은 큰 장점이 될 수 있

를 드리고, 공동의 사역을 꿈꾸는 것도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교회와 후원자들은 선교사들로부터 성급한 결과 보고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언어훈련을 잘 받아야 할 시기에 조급한 후원 교회들의 성화에 못 이겨 현장의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면 장기적인 사역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2년 동안은 언어준비와 문화적응의 기간으로 기본적인 준비기간을 허락한다. 특히 개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거나 독립적으로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의 경우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선교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인들이 잘 준비되지 못했으니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맡기거나 이양하였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역 이양의 문제는 또 다른 큰 주제가 되는 것으로 더 민감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문제점은 사역을 조기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믿지 못해 맡기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됴이라"(살전 2:7b-8) 고 말하고 있다. 문선교사가 표현하였듯이 선교사에서 현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뺀다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랑이 없는 선교사들은 누군가를 위한 화려한 장식품은 될 지 몰라도 생명이 없는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되는 자신을 보며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선교사 - 사랑 = ?” “nothing” 목적의 대상 아닌 사랑의 대상

선교사의 자기평가서를 읽어 볼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여기에 필리핀의 중부지역에서 캠퍼스처치사역을 하던 문권익 선교사가 2018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선교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사역한 이바라는 작은 도시는 필리핀이 자랑하는 막사이사이 전대통령의 고향인데 잠발레스주의 주도이며 약 42,000명 정도의 인구에 5천명 규모의 주립대학, 주요육청, 주청사, 관공서 밀집지역으로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캠퍼스에서 한국어교수와 축구코치를 하면서 사역을 하였고, 필리핀의

있는데 다음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지역교회와의 사역적 연합을 하는 것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도구로 재생산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몇 가지 반성할 점들을 발표하였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사람다운 것은 죄가 아니다"라며 필리핀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행해진 다양한 점들에서 문화적 반성을 말하고 있다. "나는 필리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고유한 인격적 기질과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느린 결속결이를 싫어했고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보는

실수라기 보다는 죄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는 실족적 연합을 하는 것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도구로 재생산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몇 가지 반성할 점들을 발표하였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사람다운 것은 죄가 아니다"라며 필리핀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행해진 다양한 점들에서 문화적 반성을 말하고 있다. "나는 필리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고유한 인격적 기질과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느린 결속결이를 싫어했고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보는

실수라기 보다는 죄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는 실족적 연합을 하는 것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도구로 재생산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몇 가지 반성할 점들을 발표하였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사람다운 것은 죄가 아니다"라며 필리핀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행해진 다양한 점들에서 문화적 반성을 말하고 있다. "나는 필리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고유한 인격적 기질과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느린 결속결이를 싫어했고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보는

다. 나의 문화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다른 문화와 비교하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화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를 먼저 경험하고 극복하는 것은 선교사로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디아스포라가 그런 장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타문화권에서 게토로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의 경우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교회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교인들을 타문화권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힐 수 있도록 타문화권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교제의 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타문화권 교회들과 교제하며, 합동예배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① 출생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창세기(창 35:19, 48:7)에 등장하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울러 베들레헴은 현대까지 도시로 남아서 예수님 출생지의 위용을 과시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교(약 6마일)에 자리 잡아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성읍들 중에 하나(대하 11:5-6)였습니다. 귀향하던 야곱이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은 아내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고 갑니다. 슬픈 라헬의 죽음과 기쁜 베냐민의 출생이 대비되는 베들레헴은 훗날 예수님의 슬픈 출생을 예언하는 듯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시대에는 스블론지파에게 베들레헴이 주어졌고, 사사 시대에는 미가의 집 제사장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며, 에브라임 지방의 한 레위인의 첩의 고향도 베들레헴이라고 소개됩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롯기의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

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왕의 고향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을 베들레헴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들레헴은 유다 땅의 조그마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중한 성지입니다. 베들레헴은 알려진 대로 뺑뺑(혹은 뺑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의미 부여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생명의 뺑' 되신 예수님의 출생지 이름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Caesar Augustus)가 인구조사를 명하자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지 베들레헴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이때는 헤롯 대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욕이 강했지만, 유대인의



강태광 목사 (WLSA USA대표)

지지를 받지 못한 헤롯은 권좌를 지키는데 민감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성을 잃은 헤롯이 베들레

기간에 로마 군인들이 베들레헴을 황폐하게 했고, 모든 유대인은 도시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이슬람 세력의 침공으로 베들레헴은 수난을 당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하자 예루살렘 주교였던 성 마카리오가 황제에게 성지에 교회를 세우자기를 요청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어머니 헬레나에게 유대지역 방문과 답사를 부탁합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헬레나는 78세의 고령에 유대 땅을 방문했습니다. 답사 후 헬레나는 유대 땅에 3개의

렸습니다. 그 후 6세기 중엽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더욱 화려한 탄생 기념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에 여러 보조 건물이 보강되었습니다.

지금의 탄생 기념 교회는 531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527-565)가 완공한 건축물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았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614년 페르시아 군대가 점령했을 때, 탄생교회에 있는 모자이크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복장이 페르시아 사람의 복장이었기

남아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건축물 중의 하나로 기독교의 역사를 전합니다.

예수님 성탄 교회는 현재 천주교,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간의 공동소유로 운영됩니다. 종교간 갈등을 막기 위한 현상유지법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세 종교가 교회당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공유합니다. 이런 공동 소유와 공동 관리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기념 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가 복잡한 규정과 법을 지키며, 공동의 소유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땅 조그마한 마을, 전 세계 기독교인 소중한 성지, 기독교 문화 도시

헴 지역에 남자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여러 역사 자료를 살핀 후에 이때 살해된 남자 유아들이 25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베들레헴에 그리스천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1세기 말엽의 교황 에바리스투스(Evaristus: 5대)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 전쟁을 겪습니다. 132년부터 135년까지 있었던 유대인 3차 반란, 즉 바르코바(Bar-Kochbar)반란

교회당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세 개의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예수님 무덤 위에, 또 하나는 예수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 산에 세워졌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교회당은 예수님 탄생 동굴 위에 339년 5월 31일에 세워졌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 탄생 교회회를 콘스탄틴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당은 6세기 사마리아 반란 시기에 불타버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638년에 이슬람을 점령한 회교 군주 오마르 역시 이 탄생교회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오마르의 오히려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코란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종려나무 아래서 낳았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회교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탄생 기념 교회는 지금까지

현재 베들레헴은 세 개의 대학교와 다수의 박물관이 있는 기독교 문화 도시입니다. 또 매년 많은 성지순례자가 찾는 주요 관광지입니다. 탄생 기념 교회와 4세기에 제롬(Jerome 혹은 Hieronymus)이 세운 수도원이 인기 있는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세력이 베들레헴을 차지할 때마다 세워진 모스크도 유명한 유적으로 베들레헴에 남아 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어린양의 혼인잔치 (계19:1-3) 찬 82장

세상심판과 달리 택한 자들의 혼인 잔치에 관해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첫 번째 할렐루야 (1-2) -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속함을 보여줍니다. 큰 음녀인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수고를 값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 번째 할렐루야 (3) - 그 심판과 대속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에게 돌아감을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이 구속이 찬양의 예배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잔치의 대상인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화 세 번째 할렐루야 (계19:4-5) 찬 43장

앞선 계시록 4, 5장에 나온 구속을 찬양하는 24 장로와 네 생물의 경배와 찬양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구속의 완전한 영광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첫째, 24장으로는 경배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대표 격으로 보인 장로들은 완성된 구속의 영광을 보고 앞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교회의 마지막이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한 예배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둘째,

네 생물도 경배했습니다. 고급천사로 알려진 네 생물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 안의 예배 원형입니다. 셋째, 보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구속 받은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참된 경배와 찬양자로 살아갑시다.

수 찬양의 이유 (계19:6-8) 찬 410장

완성된 구속을 바라본 교회는 왜 찬양합니까? 첫째, 전능자의 통치 때문에 찬양합니다. 만유의 회복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들인 많은 무리의 음성, 허다한 물소리 그리고 우렛소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권위가 찬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째, 어린양 혼인 기약의 완성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나타남은 하나님의 경영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령 안의 의, 화평 그리고 희락을 즐기는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교회는 세마포 옷으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성도의 온전한 행실을 통해 의의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와 찬송을 돌립니다.

목 어린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 (계19:9-10) 찬 162장

세상심판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교회가 복됨을 기록으로 증명하라는 명령은 교회는 구속의 참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칭함 받은 자입니다. (9) 이 말은 손님으로서의 초청이 아니고 어린양의 신부로서의 초청입니다. 창조 전에 구속하기로 예정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로, 어린양은 사랑으로 명령하

시고 교회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10) 잔치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감격으로 천사에게 사례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함은 그 구속이 참된 경배로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을 따릅니다.(10)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금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인가? (계19:11-13) 찬 97장

계시록 5장에 나온 백마를 탄 자를 복음 운동이라 한다면 여기서는 그 주체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11) 복음의 승리는 오직 진리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충신과 진실의 원천인 진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공의로 심판하는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12)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

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과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심판하심은 그 자신이 절대 심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3)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구속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호칭을 가졌습니다. 오직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마지막 완전히 드러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토 그는 무엇을 하셨습니다? (계19:14-16) 찬 367장

백마 탄 자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따르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14) 그리스도는 성결을 의미하는 세마포 입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둘째,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15) 그는 그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

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예정된 불행자의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셋째, 마침내 그는 만유의 모든 활동과 모든 상황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심을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참 심판자이심을 마지막에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음악 이야기(23)

프랜시스 치섬과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영국의 의사이자 소설가인 A.J. 크로닌(Archibald Joseph Cronin 1896~1981)이 쓴 '천국의 열쇠'(The Keys of the Kingdom)에 나오는 프랜시스 치섬(Father Francis Chisholm)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35년간 중국 선교사로 지내며 진정한 인간애를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드려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치섬은 신학생 시절 그를 깊이 이해해 주던 마그넵 주교가 중국 선교의 길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주위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고국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순종하여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 천진에서도 천마일이나 떨어진 벽지에서 이국땅의 온갖 장벽들을 극복해가며 그의 뜨거운 헌신을 통해 성당과 진료소와 교육 시설들을 마련하며 그곳에 작은 천국을 마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중 베로니카 수녀와 겪게 되는 인간적 갈등과 그 과정을 인내로 기다리는 프랜시스 치섬의 영성의 삶은 크게 교훈으로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곳에 부임한 원장 수녀 베로니카는 매우 폭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으나 프랜시스 신부의 특유한 인품을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시 흑사병이 그 일대를 휩쓸게 되자 프랜시스는 가히 초인적으로 전염병과 맞서 그 지역을 지켜냅니다. 베로니카 수녀 역시 진료 사업에 혼신을 다하고, 프랜시스의 요청을 받고 온 진실한 벗인 의사 윌리 탈록은 흑사병에 감염되어 숨을 거두는 슬픔도 겪게 됩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를 무겁게 하는 것은 베로니카 수녀의 냉담함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녹고 엄청난 비가 계속되더니 성당 건물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하필 해의 선교 현황을 둘러보겠다고 본국 교구로부터 안셀모 밀리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안셀모는 프랜시스 치섬의 오랜 친구 신부로서 외모와 말솜씨, 삶에 대한 요령이 뛰어나 뒷사람의 신임을 독차지하여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신부였습니다. 반면 프랜시스 치섬은 완고하지만 양심적인 성격 때문에 본국에서도 항상 한직에 머물러야 하는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안셀모 신부는 이곳에 와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친구인 프랜시스에게 조롱에 가까운 충고와 보기 민망할 정도의 자기과시만을 남기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안셀모 신부가 떠난 후 프랜시스 치섬은 참았던 분노의 감정 등이 엄습해오자 무너진 성당의 잔해 위에 말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베로니카 수녀가 그의 앞에 다가와 자기의 오만과 고집 때문에 신부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신부님의 구두 끈 조차도 만질 자격이 없는 속된 인간으로부터 신부님이 받은 멸시와 굴욕에는 저 자신에게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서를 구하게 되는 내용은 프랜시스 치섬의 오해와 멸시 속에서도 강력한 성격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는 하나의 단편적 모습이 되며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의 저자 크로닌은 선교사 프랜시스 치섬이란 인물을 통해 그가 펼쳤던 사역이 복음으로 인한 변질되지 않은 일관성과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조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동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생각하며 필자는 프랜시스 치섬의 부르심에 응답에 이사가 선지자가 예언자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속에 나타난 찬양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언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을 모셔 선 스랍천사들이 드리는 찬양,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3 “서로 불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함’이 가장 본질적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찬송이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이 찬송가의 텍스트를 쓴 레지날드 히버 Reginald Heber (1783-1826)는 영국 성공회 주교이자, 문필가, 찬송작가였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인으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초기 목회사역을 영국의 시골 마을 슈롭셔 호드넷에서 (Hodnet, Shropshire, England) 하고 있을 1807-1823 사이에 쓴 것입니다. 이사야 6장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사통상문 Sanctus 을 참고로 해서 가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영국의 찬송작곡가인 존 바커스 다이코스 (John Bacchus Dykes 1823-1876)가 1861년 Hymns Ancient and Modern의 조판을 위해 작곡해서 회중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순종하는 프랜시스 치섬을 통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자격을 배우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고 인종, 국가, 종교, 종파를 초월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했던 그 위대함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가운데 나타난 천상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 할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거룩(Holy)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 거룩을 외치는 모습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각각의 경배와 그것을 통해 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교리를 기억하고 매 순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더 많이 작곡되고 불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J: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필라델피아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우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우간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기 중에 있는 우간다는 부분적으로 비 피해를 주고 있으나 다행히 저희가 속한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의 기온 차가 심해 아프리카답지 않게 스웨터를 입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먼저, 후원자 모든 분도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도합니다.

<학교소식>

9월 5일 올 마지막 3학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선생님이 합류하여 Baby 클래스와 1학년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중 KCQ Cross 팀이 다녀가면서 현금하신 돈으로 유치원 3개 교실 바닥 타일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다녀가셨지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같이 뛰며 놀던 추억뿐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월 8, 9일 양일간에 걸쳐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졸업시험이 시행됩니다. 졸업

을 위한 Pass뿐만 아니라 응시생들의 성적으로 학교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학교마다 열심히 시험공부를 시킵니다. 코비드로 2년간 공부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학습저하가 있으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멜라니, 사나라, 멜리사, 에스터, 빅토리아, 엠마누엘라, 긴다, 트레마, 페니나, 케빈, 마타, 일란, 뉴턴, 나보사, 미셸, 발레리아, 한나, 다니엘라, 모세, 안, 화비오, 조수아, 에스터 2, 아사, 왕골라, 총 26명의 학생이 응시하는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이번 시험 성적뿐 아니라 좋은 크리스찬으로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위한 훌륭한 리더로 자라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학기 시작 전 국제크리스찬스쿨협회(ACSI)에서 실시하는 기초과정 세미나를 23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향후 3개 과정도 학기마다 실시하여 교사들이 먼저 참된 크리스찬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우수직원 은 식당 매니저가 선출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성경 쓰기, 외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강

- 2. 한 믿음을 주시도록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 3. 11월 7~9일 국가고시(PLC)에서 7학년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스텝 모두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 4. 안정근, 정미향 선교사

가이아나

남미 가이아나에서 강대성과 감미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2022년 9월 9일~14일 간의 “가이아나 횡단 기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두 가지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여행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아는 사람도 없이 처음 가는 길이고, 멀고 험하고 전혀 생소한 길이였기에, 두렵고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나님은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을 예비해 두셨으며, 방문할 교회도 예비하여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사탄의 여러 가지 공

격들이 있었는데, 건강상으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감미희 선교사는 초행길의 불편함과 손과 다리의 피부에 가려움증이 심해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음식이나 기타 불편함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대성 선교사는 가기 전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이런 상태로 기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지가 염려되었는데, 사탄의 방해인 줄 알고, 기도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마침내 기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도 한 달간 계속 허리가 아프다가, 최근 들어 10월 중순부터 통증이 완화되고 걸음도 걸을 만하게 차도가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

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 여행을 마친 후에, 내륙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을 열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멀리 떨어진 Saxacalli 인디언 마을 교회뿐만 아니라, 시내 조지타운 인근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Sophia 교회에서의 많은 인디언 후손들이 있어 사역의 가능성을 보았고, 무엇보다 Mahaicony 지역(약 1시간 거리)에 내륙에서 3주 보트를 타고 내려와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목고 있는 기숙사를 알게 되어, 약 20명의 인디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가능성을 찾게 되었고, 이 사역을 연결할 현지 목사님과 이 사역을 전담할 현지 교사가 연결되었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에 이 두

선교 편지

분을 만나 동기부여를 하고, 사역을 시작할 것을 계획하는 식사모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사스칼리 인디언 마을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멀리 에스키보강의 강 건너편의 Good Hope 지역의 다윗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 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기도동역자들의 기도에 기인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인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



로 임시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제목

- 1. “가이아나 횡단 기도 여행”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2. “Mahaicony 인디언 기숙사 학생사역”의 길이 열리게

- 3. 추수감사절 순회사역을 통해 온전히 교회들이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돌리게 하소서.
- 4. 감미희 선교사의 피부 가려움증이 치유되고, 강대성 선교사의 허리통증도 온전히 치유되게 하소서.

강대성, 감미희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 종족명 와이마 종족
- ▲ 인구 약 23,000명
- ▲ 종족의 종교 대부분 토속 종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 ▲ 종족의 교회 상황 기독교(연합교회)와 천주교 : 약 15%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왼쪽] 이름 : 이꾸부 와이마족 초기 어린이 학교 교사이며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부터 함께 성경 번역에 참여해 왔다. [오른쪽] 이름 : 아나베 마을의 지도자 중 하나이며 연합교회의 집사이다. 와이마족은 1988년 신약 성경 번역을 시작하여 2003

년 봉헌하였다. 신약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종족의 형제들이 번역 훈련을 받고 구약 성경 번역팀을 인도하고 있으며 종족 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다양한 성경 활용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주 사역들이 구약 성경 번역을 하면서 번역 자원위원 훈련을 받고 있고, 인근의 여러 종족의 사역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다중 언어 사역으로 전환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기도제목

- 1. 번역/보급된 신약 성경, 오디오 성경, 예수 영화를 통해 교회가 강성해지고 각 개인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도록
- 2. 구약 성경 번역팀들과 종족의 교회 지도자들, 마을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번역 사역과 문해 사역, 성경 활용 사역 등을 감당하도록
- 3. 인근 여러 종족의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에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대학원대학: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www.elpastor.com / www.lbcgoc.com Tel: (323)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40(월-금) Tel: (2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라미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교: 오후 1:20 영아교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c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3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예배)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세례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clg.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2:00(대학부) 영양예배: 오후 7:30 Tel: (952)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kbc.org / www.kb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실비지사랑교회 (Seal Beach Sp-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Clubhouse 3 Lobby/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타지역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간교회협동목사) 상일사목: (월-금)오전 10:45(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청년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마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astor.com Tel: (213)700-8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www.elpastor.com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f.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www.socalsamsungchurchof.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stn.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토 마 예배: 오전 9:45(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기도: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g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 “아름다운 저녁” 오전 9:30 오전 9:30 Tel: (213)600-2348, ccb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종교개혁주일에 함께 가는 선교역사탐방

“언더우드 선교사의 파송교회,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를 찾아서”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한국 선교 시작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기지는 한국 개신교와 장로교 선교의 초석을 다진 최초의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 교회인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Lafayette Avenue Presbyterian Church, LAPC)를 방문하기 위해 뉴욕 브루클린으로 향했다. 브루클린 주택가에 위치한 교회의 내부에 들어서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웅장하면서도 아담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 창문들, 교회의 모든 벽에 전체적으로 이어져 그려진 교인들이 등장하는 벽화("Mighty Cloud of Witnesses", 1978)와 교회당 정면에 위치한 큰 오르간(1910년 오스틴 오르간 회사 제작)이 인상적이었다.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을 수락했다. 1860년 4월24일에 카일러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고, 교회 건물은 1862년 3월에 완공되어 봉헌됐다. 건축 완공 후 교회 명이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로 개명됐다. 교회 설립 초기 1860년에 불과 140명이었던 교세는 카일러 목사의 탁월한 설교와 리더십으로 인해 30년 후 1890년에 이르러 23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카일러 목사의 목회와 설교는 매우 복음적이었으며 선교 지향적이었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당시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교회의 주일학교가 시작됐으며 청년회, 카일러 미션밴드, 여선교회와 해외선교회, 브루클린 지역의 다수 채플을 조직하며 교회선교의 영역을 다양한 방면으로 크게 확장시켰다.

카일러 목사의 30년 목회기간 동안 이룬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1884년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의 장로였던 다니엘 맥윌리엄스(Daniel W. McWilliams)가 주도하여 조직한 한국 선교였다. 이 사건은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

의 공식연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획을 그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885년 4월 5일 호라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Grant Underwood)는 아내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박사(Lillias Stirling Horton Underwood),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마침내 한국 제물포에 도착하게 됐으며, 그 날 카일러 목사는 교회장립 및 담임목사 취임 2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진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윌두우라는 한국 이름을 받고, 의료선교사인 아내와 함께 1885년 부활절에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의 선교사역은 초대 카일러 목사와 3대 담임목사인 맥카피 목사를 비롯해서 언더우드의 형이자 든든한 지원자였던 존 T. 언더우드 장로와 맥윌리엄스 장로, 엘링우드 장로 등 모두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이들의 전폭적이고 신실한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동시에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나 이사로서의 직무 또한 감당했다. 엘링우드 장로는 총회 연설 가운데 “조선과 조약을 맺게 된 지금이 바로 조선으로 선교를 나가야 할 적기이다. 왜 나에게 조선 선교를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총대들을 움직이게 됐고, 한국 선교의 지원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러한 뜨거운 지원과 기도 가운데 정동교회(현재 서울새문안교회)와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시초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으며 성경과 많은 종교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아내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박사는 한국 최초 여성 의료진으로서 명성황후의 주치의로 활동했으며 1895년 콜레라 전염병

이 돌던 당시 콜레라 병원으로 변경된 더웰터라는 무료 의료 기관을 조선에 설립하는 등 의료 구제 사역에 힘썼다. 건강악화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와 뉴저지 애틀랜틱 병원에서 사망했으나 그 시신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치되었다. 그 후 언더우드가의 4대손들은 13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오늘날 한국 인구의 1/3이 장로교 교인들을 볼 때 언더우드 부부 선교사와 그들을 재정과 기도로 적극 지원한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의 선교사역은 한국 개신교와 장로교 뿐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역사 가운데 개

혁주의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 학교, 병원을 설립하는 등 국가적 교육, 계몽, 구제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그 고된 헌신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성장했으며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통해 수많은 세계선교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게 될 때 온 세계와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다.

라파엠티브뉴장로교회는 초대 담임 목사였던 카일러 목사 이후 2대 담임 그리고, 3대 담임 맥카피로 이어지는 동안 목회와 해외선교에 중점을 뒀다면 1913년 찰스 엘벗슨이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교회의 방향을 사회복음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됐으며 그 기간 동안 교세가 지금까지 많이 축소 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전쟁 당시부터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의 상징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교회로서 오늘날에도 흑인인권운동과 사회복지, 지역전도 및 빈민 구제를 중점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옷과 음식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왔다고 한다. 현재 교회 건물도 내부, 천장, 하수도 등의 긴급 수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교회의 사회 참여와 복음화에 집중하면서 선교적 역할이 많이 줄어든 점과 자유주의 물결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세계선교와 한국의 복음화, 장로교의 시초를 세우기 위한 아낌없는 헌신과 기도, 열정으로 삼긴 아름다운 이들의 발자취와 흔적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 작은 곳에서 소수의 무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된 선교의 씨앗이 이와같이 놀라운 큰 결실로 열매 맺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기대해 본다.

(김재상 기자)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회(PCA) 소속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46년동안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로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름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열정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대학 및 PCA가 인정하는 신대원 (M.Div)졸업자 및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PCA 소속 목회자 및 PCA 교단 가입이 가능한 목회자
- 미국에서의 10년 이상 건강한 담임목회 사역 경험자
-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건강한 목회리더십을 가진 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한어/영어) 가능한 자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포함)
- 자기 소개서 "구원과 목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관련 내용" (한글과 영문)
- 대학(B.A.) 신대원(M.Div) 혹은 그 이상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소속 교단 총회 혹은 노회 발행목사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부 (동료목회자 1부, 노회 혹은 신학기관 1부)
-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영어설교가 가능한 분은 영어설교 추가)
- 가족 소개 사진이나 동영상
- 목회 계획서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31일
-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atlkfpcininvite@gmail.com
- 전경태 장로 678.362.7788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www.kfchurch.com